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58호
2024년 3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신년 모임 각 지부들 “웃놀이가 빠질 수는 없지요”



새해 첫 모임을 연 각 지역 동창회들은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음식과 게임들을 즐겼다. 설날 온 가족이 즐기는 대표 민속놀이인 윷놀이도 빠지지 않았다. 각 지부의 윷놀이 현장을 모아봤다. 왼쪽부터 지난 2월10일 열린 뉴욕 동창회 신년 하례회에서 윷놀이에 진심인 여성 참가자들. 지난 1월 20일 열린 미시간 지부 설날 모임에서는 동문들의 어린 자녀도 윷놀이에 참가했다. 워싱턴주는 도, 개, 걸, 윷, 모에 따라 점수를 더하고 빼는 좀 특이한 방식의 윷놀이를 즐겼다.

‘동문 사랑 실천’ 통합 주소록 함께 만들어요

미주 동창회, 동문DB 갱신 캠페인 시작
각 지부에 미주 보유 주소록 파일 제공
담당 임원 정해지면 함께 갱신 작업

미주 동창회(회장 이상강)가 구축하고 있는 통합 주소록이 사용자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가운데 지난 달부터 DB갱신 캠페인이 시작됐다. 10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면서 각 지부의 갱신 작업이 개시된 것이다.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동창회 임원으로 구성된 TF멤버들이 각각 3~4개 지부를 맡는다. 이들은 기존 주소록과 홍보 동영상(youtube.com/watch?v=xvPwr7Z5E&t=4s)을 지부 회장(혹은 지정 임원)과 공유하면서 갱신된 동문 정보를 모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존 주소록은 TF에서 지부별로 나눈 엑셀 파일이다.

한 멤버는 “갱신 취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며 “바쁜 동문들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주소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기존 통합 주소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갱신 작업을 마친 미네소타 지부의 양한승 총무에 따르면, 동창회에서 제공한 미네소타 지부 엑셀 파일과 2018년 동창회보 수신 명단을 찾아 비교하여 새 명부를 작성했다.

샌디에고 지부는 총 67명이 리스트에 올랐고 이중 23명이 풀주소를 기재해 우편으로 발송되는 동창회보 수신을 선택했고 나머지 54명은 이메일 PDF보기를 선택했다. 또 하트랜드 지부와 오리건 지부의 경우는 2022년 작성된 것으로 보여 향후 동문들이 직접 참여해 갱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 지부 양한승 총무는 “개별 동문의 이동, 별세, 귀국 등의 변동이 많아서 갱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갱신 작업이 잘 진행돼 지부 임원이나 본인이 수정,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보다 더 활성화되는 동창회를 기대한

다”고 밝혔다.

한편 태스크포스가 제시한 동문들의 기본 정보 구성안에 따르면, 한글 이름, 영문 이름, 단체 입학과 졸업년도, 셀 폰 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zip 코드면 충분하다.

또한 영문 이름은 Last name과 first name을 가급적 구분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 없다. 단체 입학 정보는 입학년도와 졸업년도가 필요하다. 다만 졸업하지 않은 동문은 공란으로 둔다.

동문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각각 등록하면 되고, 동창회보 수신은 한 명만 하면 된다. 셀 폰 번호는 꼭 남겨야 한다. 이메일 주소 중 특히 학교나 회사 이메일이 있는 경우, 가급적 지메일 등 무료 메일주소가 좋다. 거주지 zip코드는 동문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



"안녕하세요, 미주에 거주하는 서울대 동문 여러분!"

태스크포스에서 만든 홍보 동영상. 주소는 youtube.com/watch?v=xvPwr7Z5E&t=4s 이다.

다. 종이 신문 구독을 계속 원하는 동문은 기본 정보와 함께 수신 주소(거주지 주소)를 기재한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은 “타교에 비해 동문들의 숫자가 많은 편이지만 ‘서울대는 모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동문 네트워크가 절실하다”며 “미주 내 동창들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동창회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미주 전역 동문들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여름방학엔 자녀들 서울대 보내세요”

국제하계강좌 학생 모집 ... 동문 자녀엔 수업료 20% 감면

수강신청 5월 9일까지

서울대학교가 매년 실시하는 여름방학 국제하계강좌(SNU ISI) 프로그램이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5주과정으로 열린다. 대상은 해외대학 학부 또는 대학원 재학생과 올가을 대학진학이 확정된 고등학교 12학년 졸업예정자다.

서울대의 국제하계강좌는 올해가 17회째로 관악캠퍼스 기숙사에서 머무르며 학점을 취득하고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대 교수진과 해외초빙 교수들이 인문사회, 자연과학, 엔지

니어링, 한국학 등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며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전세계 2,000여 학 생들이 참가하는 등 수강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전공과목은 인문, 사회, 경영, 경제, 공학,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 등 분야에 걸쳐 50여개 과목으로 3학점(45시간 이수)이 부여된다. 서울대의 하계강좌는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해외대학들이 학점으로 인정 해주고 있다. 대학 측은 여름방학 동안 학점취득은 물론 세계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친교를 맺을 수 있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된다고 말했다.

한국 체류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적지 방문, 케이팝 프로그램 견학, 한옥관광, DMZ 방문 등의 과외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수강신청 마감은 5월 9일. 한국과 미국은 90일까지 무비자 체류협정을 맺고 있어 별도로 비자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대학 측은 동문자녀들에게는 수업료 2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며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온라인(<https://summer.snu.ac.kr>)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summer@snu.ac.kr)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 국제하계강좌에 참여하면 관악캠퍼스 기숙사에 머물며 강의를 듣고 한국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다.

“비대면 무료 약사 상담 해드려요”

복용 약 리뷰 · 맞춤 건강관리 · 영양제 추천

한국 약사 후배가 화상 상담

한국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킵 라이프를 운영하는 동문 후배 이소정(약학 석사) 약사가 미국에 있는 모교 선배들에게 무료 약사 상담을 해주고 싶다는 메일을 보내왔다.

이소정 약사는 2022년 (주)킵코퍼레이션을 창업해 현재 복용중인 약과 일

반약을 리뷰해 올바른 복용을 지도하며 건강검진 데이터와 생활습관을 고려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고 나이, 질병, 생활습관에 따른 영양제도 추천해주는 킵 라이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소정 동문은 유료로 진행되는 화상 상담을 미주 선배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싶다는 상담도 자신이 직접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료 상담은 구글 및 화상통화로 1회 20분 동안 진행된다. 상담을 받으려면 카카오톡 킵케어 채널을 추가하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낼때 서울대 학번을 적으면 된다.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보내는 것이 좋다. 이메일(sjlee@kiip.care)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사항을 들을 수 있다.

‘서울대 의대생’ 공부 잘하는 이유

시험 불안 · 예민함 등 낮아

모교 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 결과గా 나와 화제다. 오상훈(조선해양공학02·의대원09) 의정부유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최근 국제학술지 ‘BMC Psychology’에 발표한 ‘완벽주의, 시험 불안, 신경증이 높은 학업성취를 결정한다: 횡단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연구팀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안으로 모교 의대생 102명을 선정하고, 비교군으로 서울 소재 대학생 120명을 모집해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알아봤다. 이들의 수능 성적, 대학 학점 등 학업성취도를 비롯해 시험 불안, 여러 종류의 완벽주의,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등 심리적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모교 의대생들은 비교군보다 시험 불안 및 예민함, 노이로제 등의 신경증적 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완벽주의를 자기지향·타인지향·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세 척도로 나눠 측정한 결과,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완벽주의에 비해 부모님 등 주변 인물들의 기대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비교군보다 덜했다.

연구진은 완벽하려는 노력은 높되, 완벽함에 대한 우려가 낮은 경우를 ‘건강한 완벽주의’(Healthy perfectionists)라고 설명했다.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 잘 행동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믿음’을 뜻하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모교 의대생이 비교군보다 더 높았다.

다만 모교 의대생들은 비교군보다 자기조절효능감(self-control efficacy)은 낮았다. 자기조절은 힘든 환경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하고, 통제하고, 내적 상태에 적응하는 역량을 뜻하는 만큼, 모교 의대생들이 의대처럼 매우 경쟁적인 환경에서 정서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을 시사했다.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뉴욕에 북클럽 출범

김해암 · 최한용 · 신응남 등 동문 10여명
샌델 교수 책 '정의란 무엇인가' 첫 토론

인류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공정과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난세에, 뉴욕 지역 10여명 동문들의 열망이 모여져 마침내, 서양 철학의 시원인 플라톤이 BC 387년 아테네에 세운 '아카데미아' 학당을 21세기 뉴욕으로 가져왔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것'의 <정의>, 그리고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정의>는 과연 공정한가? 우리사회의 고착해가는 계급간 불평등 불공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현대사회에서의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응남 변호사(15대 미주동창회장)와 연봉원 변호사(문리대 61)가 공동으로 주관한 첫 모임이 2월 15일 뉴욕 베이사이드에 있는 레스토랑 거실에서, 하바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10여명의 동문이 각 챕터 주제별 발제와 열띤 토론으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참여한 동문은 김해암(의대 52) 코넬대 정신과 교수, 최한용(농대 58) 미주중신이사, 연봉원(문리대 61) 변호사, 최형무(법대 69) 변호사, 조상혁(대학원), 양대석(농대 78), 양근식(음대 82), 신응남

(농대 70) 변호사 동문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2010년 이후 수년간 서울대 도서관 대출 인기도서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에서 100 만부 이상 팔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킨 책이다.

샌델 교수는 이 책에서 "정의로운 사회로의 진입에 필요한, 공화주의적 덕성을 갖춘 시민이란, 다원적 세계에서 복합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고, 현실에 대해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며, 남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함께 형성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도덕 철학자로 존경받는, 칸트의 정언 명령은 타당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나 때도 있다. 실제로 속한 공동체가 뿌리 깊게 믿고 있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샌델 교수의 지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의존할 여러 도덕적 원리를 아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그 원리가 적용될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샌델 교수는 줄곧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자신의 입장을 수립하라고 요구한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바로 이런 노력을 하



뉴욕 동문들이 북클럽을 출범시키고 지난 2월15일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놓고 첫 모임을 했다.

는 시민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책이다.

뉴욕동창회 연영재(공대 74)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대 동창회에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 모토인 <진리>를 찾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임을 주관한 신응남 전 미주회장(15대)은 주제 발표후, 참여 회원에게 함께 가자는 부탁의 말을 아래와 같이 전했다. "공부는 한자로 工夫로 씁니다. 즉 사람의 손을 거쳐, 하늘의 뜻을 땅으로 내리는 일이라 합니다. 그 시작은 마치,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여행중에서 가장 먼 여행이며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공부는 또한 낯은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며, 오래된 인식들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철학은 망치로 한다'고 했

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인식들을 깨뜨리는 것이며 세계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로 이어 집니다. 아큐정전의 작가 루쉰은 '고향'이라는 단편에서 '이 땅위에 길은 원래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걷고 또 함께 걸으면, 길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동문들의 작은 목소리가 합쳐져 함성이 되고, 작은 발걸음이 모여 꿈을 현실로 바꾸는 행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지부 독서(북)클럽은, 격월로 우수 도서를 선정하여 책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며 토론하는 모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뜻을 높이 올리고 가슴에는 비전을 품은 뉴욕 북클럽의 멋진 향에 힘찬 박수로 응원하기를 바란다.

〈서울대 뉴욕 북클럽 제공〉

한국사찰 · 분청사기 · 탈춤...함께 공부해보실래요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3, 4월 목요일 격주로
온라인 무료 교양강좌

보스턴 지역 서울대 동문들이 다수 참여하는 보스턴 한미예술협회가 주최하는 코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엄(Korean Heritage Symposium)이 3월과 4월 목요일 격주로 동부시간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열린다. 보스턴 한미예술협회는 정정욱(의대 60) 동문이 이사장, 김병국(공대 71) 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코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엄은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심층 깊은 이해와 관심을 넓히기 위해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Zoom) 무료 교양강좌다.

강의일정은 3월 7일 한국사찰, 3월 21일 분청사기, 4월 4일 탈춤, 4월 18일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Peabody-Essex Museum, Salem, MA) 한국 컬렉션 소

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3월 7일 첫 강의를 맡은 김연지 박사(인문대 고고미술사학과 98)는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예일대학, 오하이오대 교수를 거쳐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번 강의는 신라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국사찰의 건축양식과 쌍불탑의 역할 및 불교의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3월 21일은 시카고 대학에서 미술사 박사과정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Asian Art Museum)의 최윤지 큐레이터가 분청사기의 역사와 기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4월 4일 탈춤강의는 한국 종합예술대학 명예교수 이미원 박사(인문대 국문과 73)가 맡는다. 피츠버그 대학에서 한국탈춤을 주제로 연극학 박사를 취득한 이미원 박사는 한국연극학회 회장, 평론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탈춤과 한국 연극사를 주제로 국내외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을 발간한 탈춤의 전문가이다.

4월 18일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의 한국 컬렉션 강의를 맡을 김지연 박사(미대

서양화과 89)는 UCLA에서 한국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몬테라 대학 (Montserrat College of Art) 미술사 교수를 거쳐 현재 이 박물관의 한국미술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다. 1799년에 개관하여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박물관 중 하나인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은 총 2,500여 점의 한국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서유견문록'의 저자, 유길준의 유품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 또한 2025년에는 새로 한국관을 개관할 예정이기도 하다.

심포지엄의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줌(zoom) 미팅과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동시 접속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동문들은 보스턴 한미예술협회(<https://www.kcsboston.org>) 웹사이트에 가서 등록하면 된다.

3/7

Korean Temples
Youn-mi Kim

3/21

Buncheong Ceramic
Yoon-ji Choi

4/4

Mask Dance Theatres
Meewon Lee

4/18

Korean Collections at
Peabody Essex Museum
Jiyeon Kim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Presents

2024 KOREAN HERITAGE SYMPOSIUM IV

Online Symposium
1st and 3rd Thursdays
March -April
7:30 - 8:30 PM (ET)

Via Zoom and Live Streaming on KCSB Facebook

Register to join Zoom session at www.kcsboston.org

More information at kcsboston.org

kcsboston.org) 웹사이트에 가서 등록하면 된다.

이경애(인문대 73) 편집위원

‘대우맨’ 출신 미국서 성공한 기업가 “동호회별, 소지역별 모임 활성화”

시카고 조규승 신임 회장

조규승(문리대 72) 회장은 ‘대우맨’ 출신이다. 대우그룹은 외환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2000년 사라졌지만 과거 ‘스타 경영자들의 산실’로 불렸던 대우그룹에서 경험을 쌓은 ‘대우맨’들은 자부심을 지키며 아직도 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조규승 회장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대우맨’이다. 시카고 인근 우드데일에 본사를 둔 가전제품 업체 CNA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글로벌 가전 브랜드

매직 웨프를 포함해 노폴(Norpole), 어반 리빙(Urban Living) 브랜드의 가정용, 상업용 가전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1985년 대우전자 시카고 지사장으로 미국 생활을 처음 시작해 1992년 자신의 회사CNA 인터내셔널을 차리고 2010년 매직 웨프를 인수해 지금에 이르게 된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두터운 신뢰로 구축한 영업망과 그 특유의 집념과 집중력 덕분이었다.

그런 조규승 동문이 시카고 지부 회장을 맡았다. 신뢰와 집념으로 일가를 이룬 조 동문에게 신임 회장으로서 그

가 이끌어갈 시카고 지부에 대한 동문들의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조 동문은 “2010년쯤부터 동창회 행사와 장학금 기부 등에 참여했으니 동문화 참여가 좀 늦은 감이 있다”며 “저의 작은 재능과 서울대인으로서 주위에서 받은 지원을 이제는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마음에 회장을 맡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시카고 지부 2개의 소모임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카고 지부에는 65세 이상 동문 모임인 골든 클럽과 80년대 학번 이후 동문 모



조규승 시카고 지부 회장 부부.

임인 관악 클럽도 석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조 회장은 “팬데믹 이전에는 음악 동아리, 미식가 동아리, 북클럽 등 동호회별 소모임들이 있었다”며 “동호회별, 소지역별로 모임을 다분화하고 90-95-100세 고령 선배님들께 감사패를 증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 ‘비운의 선구자’ 강기동 박사 90 노구 이끌고 한국에 간 이유는

1974년 반도체 공장 첫 설립 삼성 매각 후 시계 칩 첫 양산

한국에는 10월 29일 ‘반도체의 날’이 있다. 반도체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1994년 10월29일을 기념해 2008년부터 매해 이날 즈음에는 기념식을 열고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네바다주 리노에 살던 강기동(공대 53) 박사가 지난해 초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며 90세 가까운 노구를 이끌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크고 작은 언론을 통해 “반도체의 날은 10월 29일이 아니라 국내 첫 반도체 공장인 한국반도체 부천 공장이 설립 인가를 받은 1월26일(1974)이 돼야 한다”고 외쳤다.

강기동 박사는 삼성 반도체 전신인 한국반도체를 창업한 우리나라 반도체의 선구자다. 경기 중-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고 1958년 미국으로 유학 와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반도체 연구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모토롤라 반도체 연구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국에 선진 반도체 기술을 이식하겠다는 결심으로 한국으로 돌아갔고 1974년 당대 최첨단인 C-MOS 공정 반도체 공장을 이 땅에 처음 세웠다. 그러나 그해 10월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는 삼성에 매각됐고 그는 2년간 삼성 반도체 사장을 맡아 기술 지도를 하며 한국 최초의 시계용 칩 양산과 수출

을 성공시킨 뒤 결국은 쫓겨났다.

여기까지가 삼성이 발행한 ‘삼성반도체통신 10년사’에 매우 간략하게 소개된 이야기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강기동 박사는 자신이 개발해 한국으로 가져간 기술이 해외이전 금지 국방관련 기술이었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회사에는 취업할 엄두도 못냈고 한국과 인연을 끊으면서 한국 반도체 역사에서도 잊혀졌다.

지분 50%를 갖고 있던 회사를 열떨결에 넘기고 시계칩 양산과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지분 10%를 준다는 구두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바친 데 대한 회한과 원망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일 앞에 묻어야 했다. 진공관 무전기를 수리하고 전자기기를 고쳐주며 10년의 세월을 견뎠고 1990년 그가 개발한 파워 서플라이 SMPC가 미 해군 핵잠수함에 들어가서 그나마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강기동 박사는 “60세때부터 아내와 볼룸댄스를 배워 경연 대회에 나가 우승도 하면서 은퇴하면 춤선생으로 살 아볼까도 생각한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며 “그런데 아내가 2018년 봄 먼저 저세상으로 갔다”고 말했다.

강 박사가 세상을 향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였다. 아내는 경기여고와 연세대 물리학과를 나왔고 남산 방송국 엔지니어로 일하다 오하이오대로 유학왔다.

모든 것을 잃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미련없이 한국을 버리자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켜 그는 30년 가까이 한국을 잊고 지냈다.

아래 부분부터는 강기동 박사의 주장이다. 세상은 부도가 난 회사를 삼성이 50만달러에 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협박이 왔고 어쩔 수 없이 내놓은 회사를 삼성이 부도를 막아주는 형식으로 인수한 ‘삼성의 작전’이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는 얘기다.

회사 재정은 차관해온 외화 100만달러가 그대로 있었고 대주주의 국내 재산은 재벌급이었다며 주식 양도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서 했지만 회사 매각은 생각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2년 일하면서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으니 결국 삼성은 당시 돈주고도 살 수 없었던 자신의 최첨단 C-MOS LSI 기술을 무



국내 첫 반도체 공장을 세운 강기동 박사.

상으로 얻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기동 박사가 2022년 출간한 자서전을 읽으면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두 부부가 가슴에 품고 살았을 한이 절절하게 느껴졌다.

조국의 반도체 산업발전을 이끌겠다며 돌아갔다가 인생이 뒤틀려버린 강기동 박사. 한국 반도체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는 그의 마지막 바람이 이뤄지기를 기원해본다.



강기동 박사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반도체 업체인 한국반도체 부천 공장의 1974년 모습.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종신이사님들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음대 들어갔는데 척추 전문의로 반평생”



김광은(음대 56) 동문 “동창회 발전에 헌신할 것”

김광은(음대56) 동문이 최근 종신이사에 올랐다.
남가주에서 김광은 동문은 유명하다. 1974년부터 김광은 척추신경의료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팬데믹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긴 시간동안 한인들과 웃고 울며 커뮤니티를 지켰다. 물론 모교 음대 출신이 전공을 바꿔서 척추 전문의를 하고 있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김 동문은 매우 다채롭다. “원래 부모님이 법대 진학을 원했습니다. 제가 몰래 음대로 입학한 것이죠.” 그래서 음대를 졸업하지 못했다. 연세대

대학원까지 진학했고 종신대학원에서도 수학했다. 이후 1967년 미국에 와서 USC 정치학 박사과정을 다녔다. 다만 수료에 그쳐 클리블랜드 척추신경의학과를 더 다녀 척추전문이가 된 것이다.
6년전 사별한 김경숙씨와 사이에서 2남 1녀를 낳았다. 장남은 김예일로 버클리 를 나와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차남은 셰 프 로이드 김이다. 딸 김시원은 보건위생학을 전공해 NIH에서 일하고 있다.
김 동문은 평북 선천에서 출생해 이산 가족으로 미국에 와서는 남가주 장로성 가단 초대단장, 극동방송 및 아세아 방송

미주 LA운영위원장, 미주 한국척추신경 의학회회장을 역임했고 작가로 등단해 크리스찬문인협회 이사로 활약했다. 저서로는 자전 에세이 ‘나의 고향을 떠나면서’ 가 있고 소련 방문을 바탕으로 ‘모스크바의 봄’, 장편소설 ‘북경의 밤’ 을 출간했다. 이외 LA한인신문에 기행문, 에세이 등이 다수 게재된 바 있다.
김 동문은 서울대 동문합창단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졸업을 못했지만 항상 동문들과 동창회의 발전에 참여하고 있다” 며 종신이사 합류를 계기로 “더 많은 헌신을 약속한다” 고 밝혔다.

장병희 편집위원

동문회가 열어준 베이비 샤워

엄시내(약대 06) 동문, 건강한 아들 출산

하트랜드지부 모임 ‘눈길’

하트랜드 지부에서 이례적인 동문 행사가 열렸다. 지난 2월3일 엄시내 동문(약대 06)의 베이비 샤워가 열린 것이다. 우선, 엄시내 동문은 동문들이 열어준 베이비 샤워 파티를 하고 약 열흘 뒤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음을 미리 알려드린다.

한국에서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동창회들 마다 어떻게 젊은 동문을 영입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들려온 아기 출산 소식에 하트랜드 지부 동문들은 마치 내 가족이 생기는 양 기쁜 마음으로 베이비 샤워를 준비했다.

엄시내 동문은 지난해 가을 캔ساس 오버랜드 파크로 이사를 오며 하트랜드 동문회에 조인했다. 엄 동문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있는 UMKC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남편 김현준씨는 KU 약학대학 교수로 있다.

캔ساس 선교교회내 카페에서 열린 이날 베이비 샤워는 동문들이 함께 모여

데코레이션을 하고 음식도 함께 만들면서 많이 웃었다. 엄 동문이 출산용품은 이미 많이 준비했다며 따로 베이비 레지스트리를 하지 않아 동문들은 대부분 아기옷과 장난감을 선물로 준비했다. 선물과 카드를 열어볼 때마다 엄 동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 했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도 감사하고 행복했다.
게임도 즐겼다. 각자 풍선을 불어서

배 안에 넣고 산모 배와 가장 비슷한 사이즈의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산모의 배가 많이 작은 편이라 제일 마른 호연희(간호대 64) 동문이 1등을 했다.
하트랜드 지부 모임은 참 가족적이다. 그리 많지 않은 20여명 정도의 동문과 가족이 모이니 서로 속내를 터놓는 진심어린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게임을 하나 해도 다들 너무 진심이다.
친구같은 동문들이 있어 미국 생활이 외롭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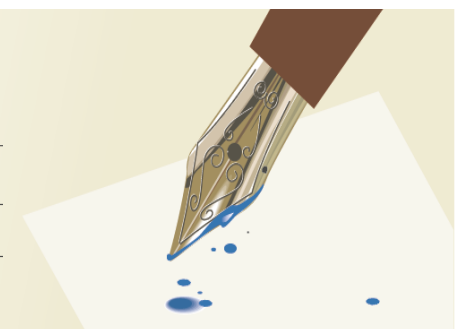
엄시내 동문이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하고 있다.



엄시내 동문에게 베이비 샤워를 준비해준 하트랜드 동문들.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ausa17@gmail.com 로 보내주시시오.



“선배님들 식생활 관리 도움 드리고 싶어”

어린시절부터 창업가가 되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스타트업 대표가 된 사람이 있다. 우리 미주에 거주하는 동문 중에도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데, 식품영양학과 86학번인 한영신 동문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스타트업 ‘뉴트리아이’ 대표가 된 경우다. 그의 얘기를 들어봤다.

한영신 대표는 우리 서울대 미주동창회보를 꾸준히 구독한 동문들에게는 매우 낯익은 이름이다. 그의 건강 칼럼이 최근까지 10회 연재됐기 때문이다. 미주 동창회보에 올라오는 글들이 대개 미주 거주 동문들의 행복한 이야기, 여행기, 이민 정착기, 성공 사례 등이 다수여서 그의 칼럼은 눈에 더 띄었는데 오로지 미주 동창회보만을 위해서 기고된 것이기에 지나고 보니 보석이었다. 칼럼을 중단한 이유는 일이 바빠져서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쉬고 있는 것이다.

그의 건강 칼럼이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바로 매우 구체적이었던 것이다. 상당수의 건강 칼럼은 ‘견과류가 좋으니 자주 먹어라’는 식이 많다 보니, 실제 얼마만큼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반면 한 동문의 칼럼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견과류를 하루 10알을 2번에 나누어 먹고, 단백질을 식은 한 끼에 달걀 한개 또는 달걀 한개 정도 무게의 단백질을 먹으라’는 식이었다. 예를 들어 주치의가 고혈압 약을 처방할 때 ‘아침 식사하고 30분 안에 XXX 50mg짜리 하나 먹어라’는 식으로 명확하다. 그의 전공이 식품영양학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랫동안 상담과 연구를 통해 식품 섭취와 영양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기에 가능한 조언이다.

한영신 동문과 인터뷰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그의 업적이나 회사의 기대되는 미래보다도 한 가지 사실 때문이다. 바로 ‘한국인의 평균 신장이 다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TV를 즐겨보는 눈썰미가 좋은 동문들의 경우는 알 수 있겠지만 요즘 한국의 20대가 무척 큰 키를 갖고 있다.

우리는 그저 풍요로워서 잘 먹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 평균 신장이 매우 신장됐다고 추측했었다. 그런데 한 동문에 의하면, 이제 한국인 10대들의 평균 신장이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이다.

실제로 풍요로운 미국에 살면서 키가 작은 타인종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원래 유전적으로 작은 인종과 족속이어서 그런 가보다 했었다. 하지만 한국의 키의 변화를 보면 유전과 먹는 것만으로

스타트업 뉴트리아이 대표 한영신 동문



어린이 식생활 및 식품 알러지 전문가이며, 식생활 진단 및 처방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영신 대표와 가족들, 남편 임성철 상무도 동갑내기 동문으로 효성그룹 주재원이다.

미주동창회보 건강칼럼 기고 큰 호응 식품 영양과 알러지 전문가로 유명 식생활 진단과 처방 전문 플랫폼 창업

평균 신장의 변화를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한 박사의 결론은 간결했다. 키는 성장 호르몬 분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생활을 하면 잘 먹어도 키가 크지 않는다는 것이다. 먹는 것에만 신경을 써서 너무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이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오히려 키가 작아질 수 있다고 한다. 하예튼 일본의 낮아지는 평균 신장 현상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요즘 한류나 K-pop만큼 뜨는 것이 바로 K-food(한식)인데 그것에 대한 이 유도 들었다. 한식은 바다, 산, 들에서 얻는 채소가 다양하고 그 조리법이 다양하여 환경과 건강을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에 더욱 인기가 많아질 것이라 했다. 특히 점점 늘어가는 채식주의자들에게 매우 소구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하다가 약간 셋길로 빠졌지만 그는 한국에서 어린이 식품 알러지

및 아토피 피부염 전문가다. 상식적으로 아토피는 피부과에서도 거의 포기하 다시피 하는 악성 자가 면역 질환이다.

또한 미국 어린이 중 상당수가 땅콩 알러지(너트 알러지)를 갖고 있어 항상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제 한국도 매우 유사한 상황이고 자녀의 알러지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부모들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한 동문은 90년 학부 졸업 후 모교에서 92년 석사까지 마쳤다. 그는 수년간 삼성 서울병원 어린이 전문 알러지 클리닉에서 일했다. 예를 들어 어린이 환자가 소아과에 내방해 알러지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면 바로 알러지 클리닉으로 오게 된다.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식품 알러지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더욱 유명해진 전문가다. 1999년 모교 식영과 박사과정에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성균관대 의대 의학과 연구교수를 10년 간 역임했다.

한 동문은 2009년 서울시 연구비를 받아 식품 알러지 대체 매뉴얼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의 영양사, 영양교사, 학부 모에게 식품 알러지 교육을 시작했다.

이러는 차에 2013년 한국에서 학교 급식으로 우유를 먹은 어린 학생이 쇼크로 사망했다. 알러지로 사망하는 경우는 대개 기도가 막히고 면역 반응으로 저혈압증이 오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알러지가 오면 바로 응급처치용 주사를 맞는다. 그때까지 한국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던 것이다.

사회적으로 어린이의 식품 알러지가 문제가 되면서 학교 급식 매뉴얼이 필요해졌다. 그가 개발한 식품 알러지 관리 매뉴얼이 교육부, 식약처 산하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 동문은 2017년 ‘뉴트리아이’사를 창립했다. 한 동문만큼 식생활 관련 건강 분야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호응이 좋다.

미국의 FDA에 해당하는 식약처 산하 기관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대상으로 B2G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아이템도 알러지 대처에서 식생활 관리로 영역을 넓혔다. 그의 진단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졌다. 각 지자체 산하 교육청이 고객으로 들어왔고 특히 비만, 편식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 관리 산업에 필수 불가결한 아이템이 됐다.

이제는 일반인들도 그의 사이트에서 자신의 식생활 관리를 통한 건강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출시됐다. 이제 곧 B2C시장도 열 계획이다.

현재 한 동문은 주재원으로 나온 남편 임성철(농화학 86) 효성그룹 상무와 대학생인 두 아들과 미시간에 거주하고 있다. 그의 회사는 직원들이 지키고 있고 그는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

그는 “오랜 기간 열심히 하다 보니 데이트가 충분히 쌓였고 덕분에 진단, 처방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했다”면서 “앞으로 일반 성인, 시니어들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하다. 특히 동문 선배들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시니어에 대한 프로그램도 곧 세상에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병희 편집위원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종신이사 참여 릴레이

“성공? 50 넘으니 ‘선한 영향력’이 의미가 됐죠”

지난 1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4에 많은 한국의 스타트업 참가해 화제가 됐다. 그만큼 스타트업의 열기가 엄청나다. 중요한 자원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많지 않은 한국이지만 인적 자원이 풍부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스타트업 세상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미주에 거주하는 한국계 인재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 전역 곳곳에서 스타트업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이들을 돕는 유명한 멘토가 바로 한기용(컴퓨터공학89) 동문이다. 그의 주장은 공부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리콘 밸리를 비롯한 주류사회에서 스타트업 멘토로 활약하고 있는 한기용 동문이 지난 2월 ‘실패는 나침반이다’라는 한글책을 한국에서 출간했다.

지난 30년 간 스타트업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써온 글을 정리했다. 멘토가 많지 않은 한국 스타트업 분야에서 많이 읽히는 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스타트업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까지 겸비한 잘 알려진 멘토다. 그에게 멘토링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굳이 IT업계가 아니어도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직장인들의 SNS인 링크드인(linkedin.com/in/keeyonghan/)에서 ‘멘토링 이야기’라는 연재글을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그의 데이터베이스 하둡에 관한 책은 대학 전공 교과서가 될 정도였다.

한기용 동문이 모교에 입학한 해는 1989년이다. 당시에는 의예과, 물리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3학과가 이과에서 톱을 다투던 시절이다. 의대에 가라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며 재수 끝에 컴공과에 입학했다.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결정이었지요. 관심도 없는 의대를 가지 않은 것이 제게는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것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학년에 시작한 아르바이트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실에 돌아온 선배들이 개발하고 있는 컴퓨터 바이오스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바이오스와 선배들의 박사 논문의 주제인 인공지능망을 배웠고 영문 윈도우에서 구동되는 한글 워드프로세서 개발에도 참여했다. 결국 이것이 인연이 돼 모교 석사 과정에 진학했고 거기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다가 삼성전자까지 취직해 5년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다. 병역도 특례로 마쳤다.

대기업을 다녔으니 주위의 부러움을 살만한 데도 그는 꼭 좋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돌아간다면 7년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을 지도 모른다”면서 “미국에 빨리 왔던지 중소기업에서 일을 더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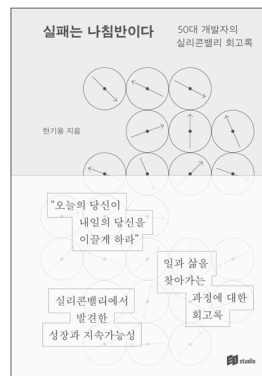
그의 멘티들에게 하는 조언은 이런 경험에서 나온다.

‘대기업이 네 커리어를 완성시켜줄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안전한 선택을 강요 받는다는



한기용 동문 가족이 지난해 성탄을 앞두고 모여 크리스마스 장식을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다.



한기용 동문이 스타트업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출간한 책 ‘실패는 나침반’ 표지.

윈도우 교과서 쓴 전설적 인물 스타트업 2곳 성공한 신화도 최근 ‘실패는 나침반이다’ 출간

것이 그의 이론이다. 이는 기성세대가 저지르는 잘못이라고 규정했다.

필요하지도 않은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차세대에게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젊은이들이 무조건 모든 것을 공부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든다는 것이다. 무언가 막히면 공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제가 멘토링을 하거나 카톡을 하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을 공부하면 미래가 준비가 되냐고 물어옵니다. 그런데 세상이 항상 공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수능이나 학력고사처럼 주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시험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성공한다고 해서 인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시험 공부하듯이 몇 년간 취업 준비해서 네이버나 삼성전자에 갈 수 있고 그러면 자신의 커리어가 완성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성세대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한 단계 더 나가면 결국 의사가 되면 된다고 결론 짓는다”며 “간혹 40대 중반인 똑똑한 의사나 변호사들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해보니까 재미가 없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어서 크

게 방향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현장 교육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 동문도 31세에 미국에 왔는데 처음에는 이런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생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은 다양성이 있고 질문을 장려한다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도착한 후 작은 회사 중심으로 ‘남의 행복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자’는 생각으로 일했고 두 곳의 스타트업 성공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나(Polyvore)는 야후에 팔렸고 하나(udemy)는 나스닥에 상장했다. 물론 그 전에 참여했던 스타트업 3곳은 망했는데 그래서 안목도 생기고 결국은 확률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과 문화가 좋은 회사를 골라야 됩니다.”

덕분에 40대 후반이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가진 경험을 후배들과 공

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특히 한국계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실리콘 밸리 지역 한인 과학기술창업자 모임인 베이 에어리어 K그룹 이사장까지 맡게 된 것이다.

인생 후반기에 들어선 그는 이제 또 다른 모멘텀을 보며 새로운 것을 찾고 있다. 지난해 12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인 기업을 창업했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 중이다. 그의 커리어가 첫 10년은 윈도우 프로그래밍, 다음 10년은 검색, 최근 10년은 데이터 일에 몰두했기에 이제까지 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해보고 싶어 한다.

“사실 저는 꿈이 없던 사람입니다. 50이 넘어서 생긴 꿈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 일단은 누가 됐건 만난다. 그가 얻을 게 없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한국에서 대학생이 와서 만나자고 해도 응한다. 사람이 괜찮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인가 배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계속 만난다. 그에 따르면, 서울대 컴공과 졸업생이 실리콘 밸리에만 150여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유니콘으로 20억달러 이상의 가치를 기록한 ‘몰로코’ 공동 창업자인 안익진 대표도 8년 후배다. 유튜브의 수익모델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한 안익진 대표는 지난해 골드만삭스가 기업가 정신 부문 ‘2023년 최고의 기업가’로 선정했는데 몰로코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이용한 기업용 맞춤형 광고 자동화 서비스를 만든 애드테크 기업이다.

한 동문은 이미 이 분야에서 많은 책을 출간했다. 컴공과 석사 과정을 밟으며 비트교육센터에서 강의했는데 소프트웨어 지식을 쉽게 설명해 풀어가는 스킬이 이때부터 시작돼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비주얼 C++’과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집필했다. 당시 방대한 윈도우 프로그래밍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풀어쓴 덕분에 많은 컴퓨터공학 관련 학부의 대표적인 교재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외 저서로 ‘한번 더 생각한 비주얼 C++와 MFC 프로그래밍 집필 (대림)’, ‘한번 더 생각한 윈도우 프로그래밍 집필 (대림)’, ‘클릭하세요 닷넷 API 프로그래밍 집필 (대림)’, ‘프로그래머 그들만의 이야기 집필 (영진)’, ‘Do it! 직접 해보는 하둡 프로그래밍(이지스퍼블리싱)’ 등이 있다.

장병희 편집위원

“1년에 4번, 간신히 8페이지 채웠었는데...”

미주 동창회보가 매월 발행되는 것을 알고 놀라는 사람이 많다. 특히 타대학 출신들에게는 매우 경의적인 일이고 심지어는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대 동창회보, 특히 미주동창회보가 오랫동안 발행되는 것은 미주 동문들을 단합시키고 네트워킹을 제대로 해보자는 초기 미주동창회장들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초창기 동창회보를 만든 주역인 권상희(신문81) 동문을 만났다.

권상희 동문은 신문학과 81학번으로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신문방송학과) 교수로 활약 중이다. 권 교수가 미주동창회보를 맡았던 시기는 1995년부터 1997년이다.

이병준 3대 동창회장 재임시로 당시 동창회보는 1년에 한번 만들다가 권 동문이 맡으면서 1년에 4번 만들었던 시기이고 면수도 겨우 8면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시는 15개에 불과한 지부와 전화 통화조차 어려웠던 시기이고 요즘같이 PC가 일반화돼 기사를 쓰면 바로 입력이 되는 워드프로세서도 갖추기 어려운 시절이다. 타이프라이터를 쓰던 시절이다. 불과 30년 전이지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다.

그는 “매회 초에 편집 회의를 회장, 사무총장, 재무국장과 특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하고 필요하면 취재도 가고, 지부에 기사 의뢰도 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 확보였고 그래서 8면을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지금 기억하기에 8면 만드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며 “그래도 연말과 연시에는 행사가 많아서 8면을 만드는게 쉬웠다. 4면을 만들기도 했고 너무 없을 때는 한국에서 나오는 한국판을 4면 잘라 붙여서 8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당시에 이렇게 만든 동창회보를 미전역 2000여 동문에게 발송했다. 물론 모든 동문들에게 동창회보를 발송하지는 못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동창회 지부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영구 정착하지 않는 동문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봐도 대단한 숫자다.

1996년 이병준 회장이 나서 연 4회 발행이 자리를 잡자 내진 김에 미주 서울대 동창 디렉토리를 제작하게 됐다. 동창들의 주소를 파악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지부에 계속 전화를 돌려야 했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조수로 여직원까지 하나 고용해서 작업을 마치고 나니 대략 1만명이 수록됐다. 권 교수는 그래서 실제로는 동창회보 편집장이라기 보다는 디렉토리 편집장의 역할을 한 셈이다.

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었지만

초창기 미주동창회보 편집장 권상희 동문



지난 1월 열린 CES에 강연자로 라스베이거스에 온 권상희 교수와 필자(왼쪽). 오른쪽은 미주동창회보를 매달 발행하기로 하고 2001년 6월 처음 만든 월간 시험판. 미주동창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지난 회보 PDF파일을 볼 수 있는데 바로 2001년 6월호 시험판부터 저장돼 있다.

타자기로 원고 쓰고 지부 통화도 힘들어 당시 미주 동문 1만명 디렉토리 만들어 3대 이병준 회장, 3년간 30만달러 투입

매달 2500달러를 월급으로 받고 97년까지 작업을 완료했다. 권 교수는 당시에 매년 10만 달러를 투입했고 3년에 걸쳐 총 30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추산했다. 물론 당시 미주동창회장이었던 이병준 동문이 대부분을 마련했다. 그는 “동창회보를 4개월에 한번 발행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었다”면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매월 동창회보를 보면서 모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단합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미주동창회보는 2001년 8월호(90호)부터 매월 발행으로 바뀌어 최근 2월호가 지령 357호다.

원래 권상희 교수는 미국에 영구 정착을 꿈꾸며 미국으로 왔다. 모교 학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3년간 일한 후 미국으로 와서 93년부터 캘스테이트노스리지에서 석사과정을 시

작했지만 동창회보 및 디렉토리로 늦어져 4년만에 석사를 받았다. 이후 2002년 서던일리노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3년까지 아카소주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후 성균관대에 부임해 언론정보대학원장(2015-2018), 한국소통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권 교수는 “세상에 뜻대로 안되는 것이 미국에서 교수로 영구 정착할 생각으로 연구 논문을 매우 많이 썼다”며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한국 대학에 주목을 끌고 덕분에 교편을 빨리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도 관심분야인 사이버커뮤니케이션, AI텔레커뮤니케이션, 소셜네트워크 미디어 등에 관한 논문과 저서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특히 AI를 이용한 소설, 음악, 그림은 물론 미디어, 프



로프트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4 CES에 강연자로 초청돼 컨퍼런스 무대에 서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종이 신문이 사라지면 미디어가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로컬 영어신문은 사라져도 소수계 매체는 모두 살아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온라인에 관심을 두고 온라인 독자도 독자 숫자에 넣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동창회보도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권 교수는 미주 동창회보를 떠난 후에도 계속 동창회보를 지켜봐 왔다고 전했다. 미주에서 나오는 동창회보가 한국 동창회로 전달되기 때문에 권 교수는 동창회 관련 일을 하면서 볼 기회가 있었다.

장병희 편집위원

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SNU Alumni Association USA

“이만하면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자부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죽음에 대한 명상’



오세경
(약대 61)

해마다 연말이 되면 많은 곳에서 아기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축제가 열린다. 이러한 축제들은 춥고 외로운 겨울 계절에 마음을 기쁘게하는 즐거운 행사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에 죽는다. 우리 부모님도 겨울철에 타계하셨고 내 남편도 한겨울에 영면하셨다. 이러한 죽음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죽음은 그 인간의 상하를 가리지 않고 또 부와 빈곤함도 가리지 않는다. 영웅호걸도 이를 면치 못했고 천재도 이를 넘겨갈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는 “great equalizer”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을 당면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그를 맞이하는 양상은 상당히 다양하다. 캐나다의 천재 피아니스트인 글렌 굴드(Glenn Gould)는 이런 숙명을 두고 일생을 비판하며 결혼도 안하고 외롭고 우울하게 살다가 5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이에 반하여 모차르트는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에까지 한마디라도 더 많은 작곡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드디어 미완성의 레퀴엠(Requiem)을 남기고 죽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하였다. 이는 죽음이 우리개인의 인생을 끝낼지라도 인류는 존속된다는 것을 믿은 것 같다.

한편, 죽음의 양상도 상당히 다양하다.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죽는 것을 인식치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90이 넘어서 쇠약할대로 쇠약해진 몸을 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다”고 한탄하다가 몇 년안에 죽는 사람도 있다.

반면에 후회없는 값진 인생을 살았어도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 사랑하는 것 등등을 떠나보내기를 싫어서 한 줄

기의 눈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암환자들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투병하다가 진통약의 몽혼 속에서 눈을 감는 사람도 있다. 이외에도 죽음을 맞이 하는데는 여러가지의 양상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개인이 알든 모르든 상당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죽음에 관하여, 영국의 의사 시인 존 키이츠(John Keats)가 쓴 영시 한 수를 소개한다.

존 키이츠는 1795년에 영국의 런던 시 외에서 마굿간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아버지의 생전에



는 그래도 남못지 않은 생활을 하였으나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죽고 말아서 10세때부터 고아로 자라났다. 비록 의사가 되어 당대의 유명한 Guy Hospital에서 인턴까지 하였으나 (그의 초상화가 이 병원에 걸려있다고 함) 시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여 의술을 시행하기보다는 시를 쓰는데 더욱 열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난과 병고 (폐결핵을 앓고 있었다함)로 고생하다가 25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운것은 어느 평론가가 그의 시에 대하여 혹평을 가하였음으로 그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절망 속에서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바이런(Lord Byron), 셸리(Shelley)와 더불어 영국 시문학의 3대가로 평가되며 특히 그의 시는 영시문학의 황금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반면에 그의 시를 논평한 사람은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를 보면 개인의 편견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며 때로는 잔인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키이츠의 경우에는 그 업적의 훌륭한

이 그의 사후세에 인정된 것이어서 생전에 그 영광의 성취감을 맛볼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깝다. 그러나 이와같이 예술가나 음악인이 당대에 인정 받지 못하고 생을 비참하게 마감한 예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 Vincent Van Gough가 그러했고 Carmen을 작곡한 Georges Bizet 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업적은 역사를 통하여 인정된 것임으로 그의 업적은 단지 그들의 생체적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것을 두고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All is well that ends well”이라

답게 살고자 노력한다. 비록 American dream을 성취하여 유명인사가 되거나 일확천금의 부자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70세, 80세의 나이가 되어 자기의 일생을 되돌아볼 때, ‘이만하면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면 그 일생은 성공적인 삶일 것이다. 아무리 그 여정이 험난하였더라도 유종의 미(美)를 거둘 수 있다면 그것으로 모든 어려움이 해소 되는 것이다.

88 올림픽 때 외신 기자들이 와서 한국사람들은 개고기를 보신탕으로 먹는다고 흥을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애를 기르

On Death

Can death be sleep, when life is but a dream,
And scenes of bliss pass as a phantom by?
The transient pleasures as a vision seem,
And yet we think the greatest pain' s to die.

How strange it is that man on earth should roam,
And lead a life of woe, but not forsake
His rugged path; nor dare he view alone
His future doom which is but to awake.

-John keats(1795-1821)

고 한 것 같다.

그러나 John Keats 가 말한 것같이 죽음을 한낱의 꿈이라고 보기에는 인생 향로가 너무나 길다.

특히 요즘은 100세의 시대라고 하지 않는가. 꿈은 개개인의 경험이어서 다른 아무도 그 꿈을 경험해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꿈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망각의 세계로 떠나 버린다. 그러나 인생의 여정은 많은 흔적을 남겨주어서 당대뿐이 아니라 후세의 사람들까지 그 업적을 즐길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그가 죽은지 200년이 넘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지금도 우리가 즐길 수도 있고 제작한지 500년이 넘은 마이클안젤로(미켈란젤로)의 회화와 조각품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이를 불러 일으킨다. 더 나아가서는 몇 천년 전의 이집트나 바빌론의 문명도 현대 사람들이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은 그의 업적을 통하여 후세에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지 않는가.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

지 않고 개를 기른다고 한다. 물론 식용이 아니라 애완용이다.

그러나 아무리 개가 영리하고 충성심이 높다한들 사람을 대치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손을 낳아서 기른 것만으로도 민족의 존속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여류시인 Emily Dickens는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와 내 주변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나의 일생은 헛된것이 아니었다”라고 하였으니 그것만으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해야 할것이다.

나는 John Keats 의 시를 수놓아 벽에 걸어놓고 우리의 운명적인 죽음을 음미하며 우리의 죽음은 한낱의 잠에 불과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이런 잠에서 깨어날 때에는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극락의 세계에 도달해 있기를 바란다.

내가 내는 동창회비
돈돈이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이날 300여명이 넘는 동문들을 한 컷으로 찍을 수 없어서 단체 사진은 무대에서 테이블을 찍는 것으로 대신했다.

“15개 단과대와 협력해 집행부 잘 이끌겠다”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가 지난 2월 3일 2024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캘리포니아 노워크 소재 더 블트리 호텔에서 300여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우기임에도 날씨가 나쁘지 않아 예년만큼 많은 동문이 참석했다. 신임 임춘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김경무 회장의 헌신으로 팬데믹 후 유증에서 벗어났다”며 “15개 단과대학 동문협회가 상호 협력하고 공동으로 10개 이상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2024년 집행부를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장진영 동문의 선창으로 애국가와 교가가 제창되고 성주경 상임이사가 회장을 역임한 상임이사 19명을 모두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홍병식(상대 52), 차종환(농대 54), 노명호(미주동창회 16대 회장), 이상강(미

남가주 총동창회 임춘택 신임 회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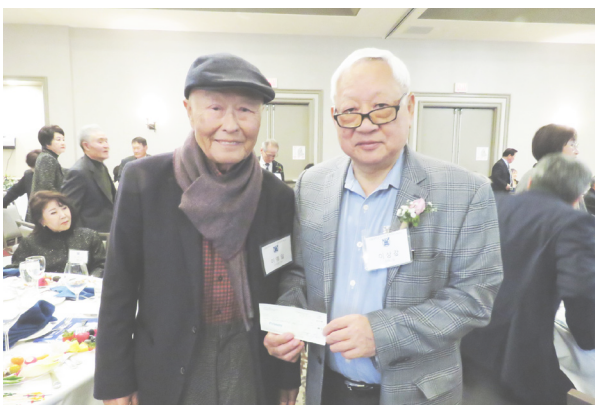
동창회기 총회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신규회장간의 동창회기 전달식이 열리고 있다. 오른쪽이 신임 임춘택 회장이고 왼쪽이 김경무 이임회장이다.

주동창회 17대 회장) 동문의 축사에 이어, 사업보고, 재무보고, 공로패 전달에 이어 이임 김경무 회장과 신임 임춘택 회장간의 동창회기 전달로 절정을 이뤘다. 임춘택 회장은 이어서 신임 회장단을 소개했고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1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결의된 채규환(법대) 2025년 차기회장을 인준하는 절차를 가졌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남가주 동창회와 미주동창회의 긴밀한 유대관계로 단합과 협조를 기대한다”며 “임 회장의 취임을 통해 특히 젊은 후배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며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부 행사에는 서울대 합창단이 경복궁 타령 등을 불러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를 축하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남가주 정기총회에서 이영일(정치 53·왼쪽) 동문이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에게 동창회보 발행에 써달라고 1만달러를 기부했다.



이날 최연소 참가자는 보잉사에 근무하는 18학번 장유호(항공공학) 동문으로 박정모(문리 66) 동문의 손자다. 박정모 동문 부부와 장 동문이 총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임 임춘택 회장이 취임절차를 마치고 행사장 곳곳을 둘러 신임 인사와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 음대 송미선(앞은 왼쪽), 김양희(오른쪽) 동문에게 의견을 듣고 있다.



남가주 서울대 동문 합창단(단장 박진국.의대65)이 2부 순서에서 장진영 동문의 지휘로 신임 집행부 출범을 축하하는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의대 동문들이 예년에 비해 많이 참석했다. 의대 테이블 중 한 곳의 모습이다. 테이블 오른쪽 2번째가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미네소타 대학 방문한 모교 후배들 ‘따뜻이 환대’

미네소타 지부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재학생 11명 10일간 방문

미네소타 동문 선배들이 서울대-미네소타대학 조인트 해외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네소타를 방문한 모교 재학생 후배들을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월 20일 오후 미네소타대학 캠퍼스에 있는 버튼홀 강의실에서는 미네소타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강경철 (04) 동문과 모교 재학생 후배 11명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황효숙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과 용정식 미네소타 지부 회장 등 선배들이 함께 모였다.

이날 모임은 미네소타대학의 Department of International Initiatives의 연락을 받고 미네소타 서울대 동문회가 마련한 것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후배들이 털어놓는 미국 생활과 진학문제, 진로고민 등에 대해 선배들이 궁금증을 풀어주고 조언을 하는 시간이었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저녁시간에 행사를 시작한 관계로 맛있는 피자를 주



미네소타 동문 선배들이 모교 재학생 후배들을 환영하며 함께 모였다.

문해 샐러드와 함께 간략하게 저녁을 나눴고 황효숙 동문이 후배들을 환영하는 웰컴 케이크를 준비해 후배들을 미소짓게 했다.

강경철 동문이 간략히 준비한 발표자료를 통해 미네소타 대학 및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참석자들의 자기 소개에 이어 학부생 후배들과 동문 선배들이 서로에게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얘기를 하는 순서로 행사를 진행했다. 현재 미네소타대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YM 동문들은 미국 대학원 진학과 진로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었고, OM 동문들은 미국에서 교수, 엔지

니어, 기업 CEO 등으로 자리잡고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온 지혜를 젊은 후배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마지막으로 각 주제별 소그룹으로 나누어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마쳤다.

학부생 후배들은 1월 17일 부터 26일까지 10일간 머물며 미네소타 대학 캠퍼스 견학 및 강의 수강, 스포츠 이벤트와 박물관 등 관람, 미네소타 소재 기업 (3M 등) 견학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돌아갔다.

글·사진=양한승 총무/용정식 회장



황효숙 동문이 특별히 준비한 Welcome 케익.

‘아리랑’도 ‘까치 까치 설날’도 다같이 노래

미시간 지부

설날 행사 39명 참석 아이들도 웃놀이 즐겨

미시간 지부 설날 행사가 지난 1월 20일 사우스필드(Southfield)에 있는 한 인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9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눈 뒤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게임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새해 인사를 나눌 때는 조영현(음대 95) 동문의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가 울려 퍼졌고 점심 식사는 다양하고 영양만점의 한식부페가 차려졌다.

후식으로 설맞이 떡도 준비했다. 식사를 마치고 여느 때처럼 서울대학교 교가 합창으로 행사가 시작되었고 참석자 소개 및 회장인사가 이어졌다.

이후 심민정(음대 96) 동문이 대금으로 ‘아름다운 나라’와 ‘홀로 아리랑+아리랑’을 연주했는데 아리랑 가락이 연주될 때에는 동문들이 다같이 따라 불



미시간 지부 동문들이 지난 1월 20일 열린 설날 행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렀다. 게임은 참가자들을 청룡팀과 사랑팀 둘로 나누어 신미나(사범대 91) 임성철(농대 86) 최명동(사범대 대학원 98) 동문이 삼행시 짓기, 낱말 맞추기, 윷놀이를 진행하였고, 아이들까지 참여해 치열한 점전 끝에 청룡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또한 조영현 동문이 두 개의 피아노 곡을 연주하면서 작곡자를 맞추는 퀴즈를 내기도 했다.

이날 모임은 설날 행사인 만큼 참가자들이 다같이 동요 ‘까치 까치 설날은’을 부르며 마무리했다. <미시간지부 제공>



대금으로 아리랑을 연주해 동문들의 가슴을 울린 심민정 동문. 조영현 동문이 연주 후 작곡자를 맞추는 즉석 퀴즈를 내고 있다.



뉴욕 지부



뉴욕 동문들이 지난 2월10일 신년하례회 행사에 모여 환히 웃으며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웃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명절 분위기 '흠뻑'

매달 줌 세미나도 개최 3월 5일 장소현 동문 강연

지난 2월10일 6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뉴욕 동창회 신년 하례회 행사가 열렸다.

동문들은 이날 한복에서 드레스, 정장, 골프복, 운동복 등 자유로운 복장으로 모여 정답게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설 명절에 맞게 떡국, 빈대떡, 막걸리로 오찬을 함께 했다.

여흥시간에는 민준기 동문 (공대 59)

이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가곡을 노래했는데 아마추어 성악가임에도 대단히 수준 높은 노래 실력으로 동문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한국 고전무용 강사의 지도를 따라 흥겨운 전통 춤사위를 뽐내는 시간도 가졌다.

웃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설 명절에 온가족이 모여 즐기던 놀이도 빠지지 않았다. 연로하신 선배 동문들은

제기차기와 딱지치기를 하는데 몸이 젊은 시절 같지 않아서 다소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웃놀이는 왕년의 실력을 뽐내며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모임에서는 동창회 상반기 행사 안내도 있었는데 뉴욕 동창회는 매달 첫째주 화요일 저녁에 줌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우선 3월5일 저녁 8시 남가주 장소현(미대 65) 동문이 한국화가 백남준, 이응노, 김환기, 박서보, 이우환 작가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 추상미술에 대해 강연한다.



고사성어 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는 동문들.

바리톤 김기봉, 장학기금 마련 독창회 '성황'

시카고 지부

청중들이 신청한 한국가곡 7곡 즉석 노래

바리톤 김기봉(음대 87) 동문이 지난 2월11일 샴버그에 있는 엘러슨 프레리 아트센터에서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미래를 여는 음악회' 독창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음대 학생들을 발굴해 장학기금을 마련해주고 미국 음악 프로그램에 등록시켜 대학원까지 진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250여 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김 동문은 피아노를 맡은 이소정 교수(저드슨대 피아노과)의 반주로 고향과 행복, 삶을 주제로 한 한국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부른 후 이례적으로 관객들이 입장하면서 신청한 한국 가곡 중 가장 인기있는 7곡을 택해 즉석에서 노래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선정 곡은 '청산에 살리라', '선구자', '보리밭', '구름이 흘러가는 곳', '비목', '가고

파', '그리운 금강산' 등 7곡이었다.

1위로 뽑힌 그리운 금강산을 부를 때까지 노래가 끝날 때마다 관중 호응은 더욱 커졌다.

20곡에 가까운 노래를 선사한 김 동문과 이소정 교수의 무대 끝인사에 참석자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쏟아냈다.

김 동문은 서울대 음대와 이탈리아 파르마 아리고 보이토 국립음악원을 졸업 후 록카텔레마치에 국제 성악콩쿨에서

입상했으며,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라 트라비아타', '까밀라' 등 다수에서 주연을 맡았다.

이번 음악회를 총괄기획한 이소정 교수는 "한국 가곡에 장점이 있는 그의 독창회로 올해 무대를 꾸민 건 내 아이디어"라며 "팬데믹 이후 흩어진 한인 정서를 한 데 모으는 데는 한국 가곡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시카고 동창회 조규승 회장을 비롯해 여러 동문들이 참여해 김 동문의 독창회를 축하했다.



조규승 시카고 동창회 회장(맨 오른쪽) 등 서울대 동문들이 공연을 마친 바리톤 김기봉 동문(가운데)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바리톤 김기봉 동문이 이소정 저드슨대 피아노과 교수의 반주로 노래하고 있는 모습.

워싱턴 DC 지부

동문 · 가족 73명 모여 즐거운 ‘설날 모임’



지난 2월3일 열린 워싱턴DC 지부 설날 모임에는 동문과 가족 73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이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하고 있다.

워싱턴 DC 지부는 지난 2월 3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 Breakers Korean Bar-B-Q Fair Oaks Mall에서 동문과 가족 73명이 참가한 가운데 설날 모임을 가졌다.

한겨울 날씨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따뜻하고 봄날 같이 햇살이 가득한 날이었다. 동문들은 오랜만에 만나 안부를 묻고 새해 덕담과 답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점심으로는 떡국과 뷔페식 식사를 했다.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가장 자랑스러운 일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다 외래어를 쓰면 탈락하는 ‘훈민정음’이란 게임과 새해 다짐에 대한 ‘빙고게임’ 등을 하면서 즐거운 낮 시간을 보냈다.

한정희(미대 81) 편집위원

동문들 마주보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덕담

워싱턴주 시애틀

각자 팍력으로 음식 장만
답소 나누며 웃놀이 즐겨

날씨가 매우 화창했던 지난 2월 3일 토요일 동문과 가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워싱턴주 동창회 신년하례식 행사가 열렸다.

신년 하례식에서 전통적으로 해 오던 대로 동문들이 각자 팍력(potluck)으로 집에서 만들어온 음식을 키친 카운터에 넓게 늘어놓고 공유하였는데 하나같이 맛있어 모두들 좋아했다. 임헌민(공대84) 회장은 올해도 신년 하례회 장소뿐만 아니라 와인과 해물파전, 잡곡밥, 립아이+뉴욕 스테이크를 준비해 주었으며 집에 와 있는 치과 의사 아들이 고기를 굽고, 여러가지를 도와줬다.

임헌민 회장이 준비한 와인 외에도 몇몇 다른 동문들이 음식과 함께 와인을 가져와 점심 식사 전 와인을 마시며 함께 즐거운 답소를 나눴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나이, 학번에 관계없이 양편으로 나누어 마주서서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라는 새해 인사를 하면서 행사를 시작했다. 이번 신년 하례식에는 오래만에 혹은 새로 온 동문들이 여럿 있어 반가움을 더했다.



워싱턴주 시애틀 동문들이 지난 2월3일 임헌민 지부 회장 집에 모여 신년하례식 행사를 가졌다.

직장 때문에 캘리포니아로 이사갔다가 이번에 시애틀로 다시 돌아온 김진영(공대 99) 부부, 보스턴에 사는 딸과 노스 캐롤라이나에 사는 아들의 아기를 봐주느라 지난 몇년 동안 나오지 못하다 이번에 시간이 맞아 정말 오랜만에 동문 행사에 나온 하주홍(경영대 77) 전 회장 부부 그리고 그 사이 Bothell 에 피부 클리닉을 연 이춘우(자연대 98) / 홍세정(의대 03) 부부가 오랜만에 동문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전했다.

이춘우, 홍세정 동문 부부는 지난해 말 배포한 동문회 주소록에 광고도 올렸다. 그리고 이번 모임에 가장 막내로 참석한 박윤재(공대 07) 동문의 인사말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게임 시간. 워싱턴주 신년 하례식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웃놀이를 했다. 워싱턴주 웃놀이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부부가 짝을 이루어 참가하며 각각 1번씩 던지는데, 도는 1점, 개 2점, 걸 3점, 옷 4점, 모는 5점, 옷과 모는 한번 더 던지며 부부당 던진 점수를 총합하여 매회 점수를 계속 더해 가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을 하는 것인데, 부부 중 두번째 사람이 마지막으로 던진 것이 개가 나오면 그 회의 부부 합산 점수를 마이너스로 바꿔 감점하는 룰이 있다.

총 세 그룹으로 나누어 참가자 전원이 게임을 하였는데 아주 적절한 시점에 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게임에 참가

한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각 그룹의 1등 우승팀과 꼴등팀이 각각 이날의 상품인 유기농 김 10pack 짜리를 상품으로 받았다. 이어진 게임은 몸짓으로 영화제목을 설명하면 맞추는 게임으로 가장 많이 영화 제목을 맞춘 사람에게는 스타벅스의 기프트 카드가 상품으로 수여됐다.

웃고 즐기다 보니 어느덧 3시가 넘어 동문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오는 8월에 개최하는 하계 피크닉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행사를 마쳤다. 동문 모임이 재밌다는 소문이 났는지 워싱턴주 동창회는 행사를 할 때마다 참가하는 동문들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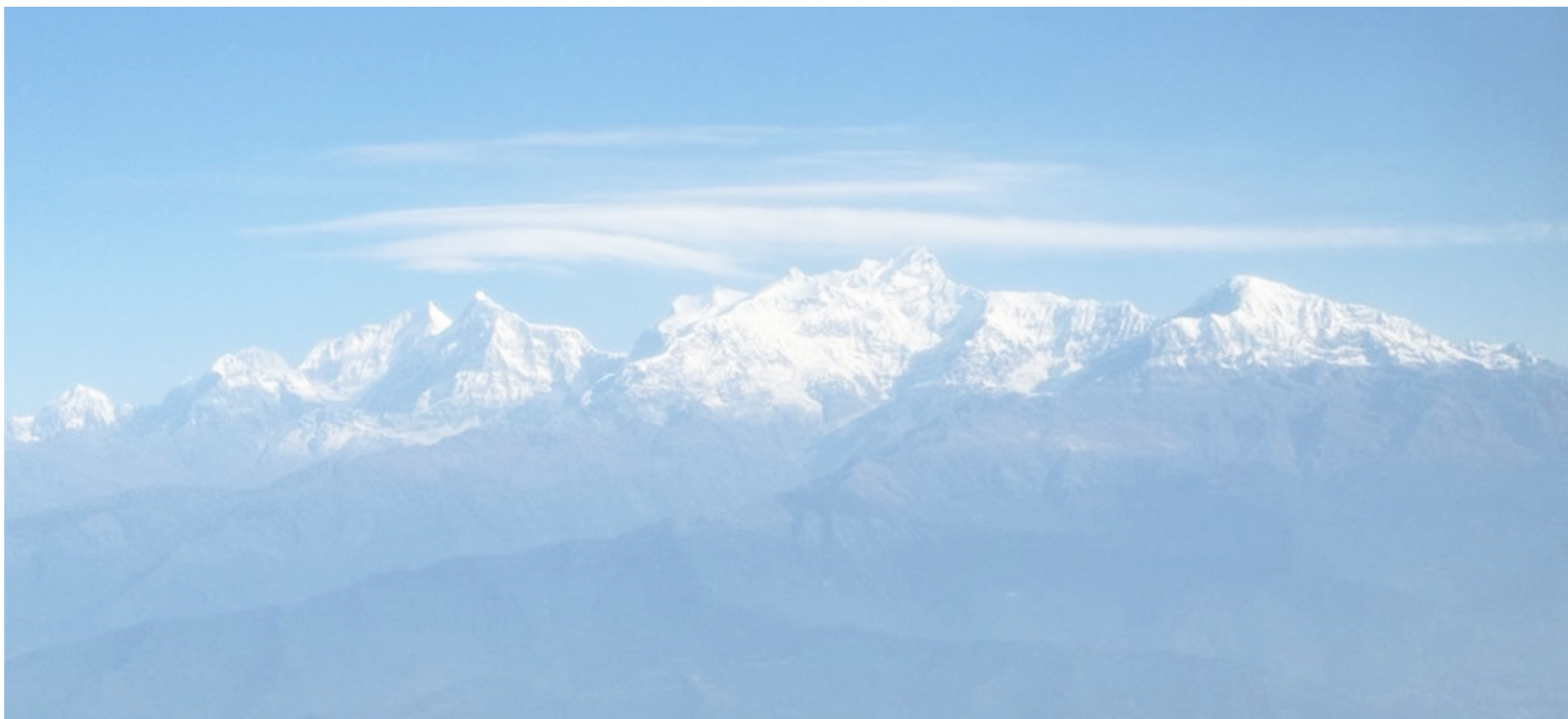
글 = 이정관(농대 83)



왼쪽부터 정겹게 둘러앉아 웃놀이를 하는 동문들. 몸짓으로 영화제목을 설명하면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다. 각자 팍력으로 준비한 음식들은 하나같이 맛있었다.

하기환 동문(공대 66)의 안나푸르나 트레킹(3)

신들이 사는 영봉...그 장엄함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에 올라 바라다 본 히말라야의 산들. 흰 눈에 덮인 채 하늘로 치닫는 모습들이 영험하다는 인상까지 준다.

원정기간: 2023년 11/3-11/13

원정대원: 하기환, 이영근, 론 김, 제인 김, 고수미, 김태미(이상 재미스키협회 회원 6명)

아름답지만 위험한 산

멀리 목적지 데우랄리가 보이는 지역에서 너털바위 지역이 나타났다. 이곳은 우리처럼 안나푸르나 트레킹 도중 눈사태로, 2020년 1월 17일에 한국 선생님 4명이 조난사한 곳이다. 우리 같이 데우랄리산장에서 숙박하고 다음 날 기상이 너무 안 좋아 하산하다가 이곳에서 눈사태를 맞았다고 한다. 그때 네팔인 3명 합해 모두 7명이 조난을 당했다. 후미를 책임진 가이드 디팍이 자세히 설명해 준다.

우리는 힘겹게 올라가는데 하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목적을 이루고 내려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다. 데우랄리까지 가는 길에서 우리는 해발고도 3,000미터를 넘어선다. 데우랄리 도착 전 마지막 힘든 고개라 할 수 있는 힌쿠동굴(Hinku Cave) 계단을 만났다. 동굴이라고 하지만 커다란 바위 아래를 통과하는 계단길이다. 동굴을 지나면 데우랄리 직전까지 평탄한 길이 나타났다.

데우랄리라치로 가까이 갈수록 모디계곡(Modi Khola)과 함께 길이 나 있다. 대나무와 푸른숲이 있었던 뱀부의 풍경과는 달리 3000미터를 넘는 데우랄리 근방은 이제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다. 긴 오름 끝에 도착한 데우랄리 라치

마차푸차레베이스캠프 가도가도 끝없는 돌계단

고도차 500m 넘는 산행에 고소증까지

햇살 받은 구름과 파란 하늘 찌를 듯한 정상 눈앞

여자 대원들 컨디션 최악, 상의 끝 헬기로 하산기로

설산의 정수리부터 황금빛으로 물든 새벽일출 장관

히말라야 트레킹 피로 패러글라이딩으로 풀어

에는 3,230m라는 표지판이 보인다.

이곳에서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MBC)까지 2시간 거리라는 안내판도 있었다. 춥고 떨리는 날씨에 식당에 부탁해서 '백숙'을 주문하자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는 거였다. 이곳에서는 고기 종류는 일체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 올라 갈수록 라치의 시설은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도 어두워지는 6시쯤 들어오고 한번 꺼지면 아침까지 헤드랜턴에 의지해야 했다. 그나마 이런 높은 고도에 이만한 라치가 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목적지인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로 향한다.

아침엔 추웠다. 크게 힘든 것은 아닌데 얼굴이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었다. 오늘은 이곳 데우랄리라치를 출발하며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MBC)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4,130m)로 가는 날이다. 어제

부터 고소증으로 고통받던 고수미 대원이 아침이 되니 더 힘든가 보다. 데우랄리에서MBC로 가는 길 또한 돌계단이였다. 깎아지른 바위산을 배경으로 만들어 놓은 티베트 불교의 작은 제단이 보인다. 그 뒤 배경으로 보이는 마차푸차레가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고도를 높일수록 나무는 점점 적어지고 기온도 내려갔다.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라치까지는 오르막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고도차가 500미터가 넘는 산행이니 힘들다. 그리고 고소증 때문에 천천히 걸어야 한다.

드디어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라치가 시야에 들어온다. 그 라치 앞에 ABC로 가는 갈림길도 보였다. 햇살을 받은 구름과 파란 하늘을 찌를 듯 마차푸차레봉 정상이 솟구쳐 있다.

힘들게 올라오고 있는 두 여자 대원들이 저 멀리 보였다. 두 여대원의컨디션이 정말 최악이다. 상의 끝에 두 대

원은 이곳에서 잔 후 아침에 헬리콥터를 불러 하산하기로 결정했다. 고소증에는 약이 단 한가지다. 고도를 내리는 것만이 직효인 것이다. 이곳 히말라야 계곡에서도 전화통화가 가능했다. 우리 여대원들처럼 고소증에 시달리는 트래커들이 많은지 헬기를 부를 수 있는 예약시스템이 가동 중이었다. 경험 많은 가이드의 도움으로 아침 일찍 헬기가 오기로 예약이 끝났다.

드디어 도착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히말라야에서는 비상사태가 아니면 오전에만 헬기가 운행한다고 했다. 오전에는 바람도 없고 날씨가 좋기 때문이다. 두 여대원이 방을 얻어 휴식을 취하는 걸 확인한 후, 후미를 맡았던 가이드 한명과 포1명을 남기고 우리 4명은 출발했다. 우리는 계획대로 최종 목적지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라치에서 자기로 했다. 여기부터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까지는 두세 시간 거리였다. 나를 포함해남은 대원들은 걸어서 하산해도 될 만큼 컨디션이 좋았지만 우리도 헬리콥터로 하산하기로 했다. 팀이 이산가족이 되기보다 끝까지 함께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였다. 그리고 끝없이 오르고 내려야하는 계단도 부담스러웠다. 얼마 후에 시작할 스키시즌을 위해 무릎을 좀 아껴놓을 이유도 있었다. 그런 결정을 내린 우리도 헬기를 예약한 다음 출발했다.

오후엔 구름이 끼고 날씨가 더 흐려지므로 서둘러 ABC로 향한 것이다. MBC

앞에 인간은 한갓 미물일 뿐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서 맞은 새벽 일출. 설산의 정수리부터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에서 ABC로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완만했다. 4,000미터 가까이 올라서니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어진다. 드디어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표지판이 우리를 맞아준다. 이제 목적지에 다 온 것이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산봉우리는 구름에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예약한 롯지에 여장을 풀고 저녁을 했다. 고산지대라 그런지 밥 맛이 없어져서 아무것도 먹을수가 없었다. 해가 넘어가자 기온이 급강하했다. 방에 가서 잠을 청했지만 너무 추웠다. 가지고 온 옷들모두 꺼입고 침낭속으로 들어갔다. 수면제도 안 먹었다. 혹시 잠에 취해서 화장실도 못가고 실수할까 밤을 지새웠다.

새벽 일출을 보러 밖으로 나왔다. 얼굴이 많이 부은것을 느꼈다. 히말라야 산맥이 나를 감싸고 있었고 나는 안나푸르나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듯 싶었다. 이곳엔 인류최초로 탐험계의 4관왕(true expedition grand slam)을 이룬 전설적인 한국의 박영석 대장 추모비가 있었다. 추모비 속 박영석 대장 사진이 활짝 웃고 있다. 2011년 박영석 대장 일행이 여기 안나푸르나산에서 조난사했다. 그들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비극을 모른다는 듯 드디어 일출이 시작되었고, 설산의 정수리부터 황금빛으로 물들어 온다. 장관이다. 이 한 컷의 풍경으로도 이번 트래킹의 노고를 보상받는가 싶다.

오전 9시쯤 멀리서 예약한 헬리콥터 소리가 나는 가 하더니 어느 새 착륙했다. 우리는 그 헬기를 타고 포카라 공항으로 향했다. 4일 걸려서 힘들게 올

라온 ABC에서 포카라공항까지 15분 가량 밖에 걸리지 않았다. 공항에는 2시간 전 쯤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에서 내려 온 두 여성 대원이 기다리고 있다. 그녀들은 내려왔어도 여전히 몸이 회복되지 않은 듯 보였다. 헬기경비가 한대당 1,800달러라 싸진 않지만 쉽게 내려와서 모두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카트만두보다 조용하고 환경이 좋은 포카라에서 이틀을 더 머물기로 했다. 히말라야가 내려 준 물이 모인 페와호수. 예전 नेपाल 국왕의 별장도 이곳에 있다고 했다. 매연이 지독했던 카트만두와는 달리 맑고 깨끗한 자연이 돋보이는 포카라였다. 날이 좋은 날이면 잔잔한 호수면에 마차푸차레 봉우리가 온전히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곳의 호수가를 걸으며 트래킹에서 쌓인 피로를 달랬다.

시간적여유가 있는 남자대원들은 또 다른 모험에 나섰다. 세계 3대 패러글라이딩으로 유명하다는 포카라에서 한번 체험해 보기로 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패러글라이딩 비행이다.

우리는 페와호수를 발밑으로 감상하며 체공시간이 무려 30분이나 되는 긴 비행을 했다. 팀까지 100달러 정도이니 가격대비 최고인 것 같다. 포카라에서 즐거운 이틀을 보낸 후 카트만두로 귀환했다. 이 원정에 글을 준비해 준 태미 김, 사진을 준비해 준 이영근, 회계 및 예약까지 한 제인 김 대원 등 6명이 합심해서 원정을 무사히 끝낼 수 있어 모두에게 감사한다. <끝>



2011년 안나푸르나 빙하지대에서 조난사한 박영석 대장의 추모비 앞에서.



“너무 힘들어, 우리도 하산은 헬리콥터로” 론 김 부부와 하기환(가운데) 회장이 헬기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다.



대원들은 히말라야 트래킹의 피로를 포카라 마을에서 유명한 패러글라이딩으로 풀며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ary Foundation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종신이사 참여 릴레이 전개

오타니와 한국 체육계 ... 스포츠 정신을 생각하다

이영희 동문 · 이상백 교수를 기억하시나요



조중행
(의대 63)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영희 동문. 오른쪽은 역사학자, 사회학자로서 큰 업적을 남긴 이상백 교수. 그는 한국 올림픽의 선구자로 불린다.



요즘 한국의 스포츠계를 지켜보는 팬들은 슬프다. 최근 국가 대표 축구팀 안의 추문, 한국을 대표해 미국에 진출, 각광을 받던 스타 야구선수들의 폭력, 음주 사고 등 추문은 그치지 않고, 겸손과 성실의 상징으로 보도되는 일본 출신의 대선수 오타니와 비교돼 한국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스포츠에서 아마추어리즘이 가장 순수하게 지켜졌던 것은 고대 그리스였다. “The Republic”을 쓴 Plato의 BC 380년대 고대 그리스에서는 육체의 건강(athletics)과 학문적 성취(academism)를 교육의 두 가지 축으로 접목시켰고, 당시 그리스인의 정신은 돈이나 사회적 이득이 아닌 자신의 자존감(pride), 명예의 상징인 올리브 잎사귀 하나를 위해 스포츠에 목숨을 걸었던 역사가 있다.

근대 올림픽도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스포츠 정신을 계승하려는 국제적 노력의 산물이라 하겠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이런 올림픽 정신은 프로스포츠는 물론 학교 스포츠, 사회인 스포츠 등에서도 과도한 자본주의, 국가 주의, 민족주의적 욕망으로 오염되어 악물, 돈에 매수된 정신의 타락으로 인한 추문이 연속되고 있다. 이런 타락현상의 배경에는 이런 현상을 과장 보도, 영웅화해온 한국 언론 매체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100전 99패의 서울대 야구부, 또는 동경대 야구부의 이야기, 열대지방 중남미의 볼슬레이 팀 동계 올림픽 참가, 최근 자본주의 스포츠의 상징 미국 프로야구에서 보여주는 일본인 오타니의 태도등은 이 자본주의 속의 타락된 현대 스포츠에서 아직 남아 있는 아마추어 스포츠 정신의 한줄기 불씨를 보는 듯 하다.

몇 년 전 영국 퇴역 군인들의 복지 자금 모금을 위해 단독으로 도보 남극 대륙 탐험중 생명을 잃은(Alfred Tennyson, J.Joyce시를 낭송하며) 퇴역 장군 Henry Wosley 의 이야기는 지성

육체의 건강과 학문적 성취 접목했던 순수한 아마추어 스포츠맨십 사라져 경기고 야구 선수로 타격상 받은 이영희 서울 법대 거쳐 노동법 전문가로 업적

(academism) 과 athletic의 이상적 접목의 이야기라 하겠다.

1980년 Lake Placid Winter Olympic에서 500M 외 5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Eric Heiden은 올림픽 직후 모든 광고 제안을 거절하고 학교로 돌아갔고, skating에서 은퇴, cycle선수(cycle명예의 전당인)로 활약하며 대학을 졸업, Stanford 의대를 졸업하고 정형외과의(orthopedic surgeon)가 되는 초인적 노력을 보여주었다. 큰 사고를 당했던 미국의 스케이트 선수 JR Celeski는 치료 후 2010년 동계올림픽에서 두 종목 동메달을 탈수 있었다.

나 자신 단체 스포츠에서도 의미있는 시간을 소요하지 못했으나, 1960-70년대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나의 주위에도, 젊은 시절 뛰어난 또 순수한 아마추어 스포츠맨의 자질을 보여주고, 다른 분야에서 큰 업적을 쌓은 인물들이 몇 분 기억된다.

전 노동부 장관 이영희 교수

1958년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때 나는 방송반, 신문반 일로 학교에 나와, 선배들이 시키는 음반 녹음, 가을 교지 발간 일을 한 적이 있다. 시간이 가면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던 친구와 만나 잡담을 하며 고교 야구부의 batting practice를 보고 있었다. 동쪽 강당 아래 홈플레이트에서 한 왼손잡이 타자가 치는 공마다 서쪽 담장을 넘기거나 담장 옆 체육관 지붕을 때리고 있었다.

당시 경기고교 야구부는 꼴찌수준으로 늘 바닥이었다. 나는 놀라서 “저게 누구

야?” 친구에게 물었다. 경남 중학을 졸업하고 나의 class보다 2년 위 高1에 입학한 왼손잡이 야구선수 “이영희”란 분이였다.

팀의 수준이 늘 바닥이니 청룡기나 황금사자기 Tournament에 전에 출전하면 팀은 1회전이나 예선에서 7회 콜드게임으로 떨어져 나가니, 그는 실력을 제대로 나타내 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서울 고교 야구 춘계, 또는 추계 리그 시즌이 되면 팀은 지더라도 그는 타율, 장타율에서 당시 야구 명문고였던 경동, 휘문, 배재등의 일류 타자들과 견주어 하나도 밀리지 않았다. 졸업하기 전 高3때의 추계 리그에서 그는 같은 학년 경동고 “백인천”(한국 최초로 일본 프로야구 진출)등을 누르고 타격상을 받았다.

61년 서울 법대에 진학,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제적, 몇 년 낭인 생활을 하다가 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하며 70년대에는 전태일 사후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결국은 노동법 전문가로 인하대에서 노동법교수를 지냈다. 김영삼 대통령시절 여의도 연구소장직을 거쳐,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장관을 지냈다.

몇 년 전 서울 방문시, 법조계 친구들과 과의 저녁자리에서 우연히 이 선배를 만나 인사하면서 중학 시절에 내가 본 그분의 호쾌한 타격 폼을 추억할 기회가 있었다. 아깝게도 암으로 돌아가셨다. 낭인시절 학원 강사로 일할 때 만나 결혼한 몇 년 아래의 부인, 서울대 이모교수를 남기고, 가깝게 같이 활동하다 몇 년 먼저 떠난 보수 선진화의 담론가

그의 후배 박세일과 함께, 한국의 보수 진영은 또 한명의 보수 인재를 잃었다.

서울대 사회학과 이상백 교수

학창시절 올림픽 때만 되면 신문에 IOC 위원, 올림픽 선수 단장, 체육회 부회장등 한국의 스포츠 행정에 단골로 이름을 날리던 분이 서울대 문리대 사회학과 창립자이며 주임교수였던 역사학자, 사회학자 이상백 교수다. 우리가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 큰 키의 미남 교수 이 분을 문리대 교정에서 본 분도 있을 것이다.

독립운동가 이상정 장군의 동생, 한국의 삼대 미남(?) 시인 이상화(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동생, 수렵가 문필가 이상오의 형으로 대구 명문가 출신이다. 이분의 역사가로서의 업적(친단학회, 고려, 조선 사회사)이나 사회학 교수로서의 학문적 업적(한국사회론, 통계적 사회학, 정치 사회학)등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그의 평전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와세다 대학의 농구부 창설, 주장, 선수 생활, 농구 감독, 일본 농구협회 창립, 일본체육회의 총무로서 일제 강점기때 일본의 올림픽 참가, 선수단 조직, 일본 체육계와 미국과의 교류, 농구의 올림픽 종목 진입등 그가 20-30대였던 일제시 활동 및 해방후 혼란기 몽양 여운형의 측근으로서의 노력, 그후 양국의 체육계 발전을 위해 그가 이룬 업적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친일파도 아니고 창시개명도 하지 않았지만, 일제 때 체육계의 그의 위상은 일제 총독부 관리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 한다. 어떻게 이런 분들은 짧다면 짧은 60여 평생 그 수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말인가?

그의 사후 일본정부, 한국정부 모두 훈장을 수여했고, 얼마전 까지 그의 이름을 딴 한일 대학농구 교류전이 매년 열렸다.

우리 민족의 삶이 녹아있는 가슴 울린 아리랑



김형도
(공대 58)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슴 울린 장면을 하나 들라하면 단연 피겨댄싱이다. 한국태생 여인과 한국으로 귀화한 미국 태생의 남자가 한조가 되어 벌리는 아이스댄싱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미끄러지는 장면 자체가 예술이었다. 또한 댄싱곡이 다름 아닌 우리 아리랑이었다. 어떻게 아리랑이 스포츠의 율동곡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얼음판 위에서.... 정말 놀라왔다. 그래서인지 환상적인 두 남녀의 연기에 더욱 매료되었고, 더구나 배경으로 들려오는 곡 아리랑에 실로 가슴 뭉클해지는 전율을 느끼기도 했다.

가곡 비목(木)의 작사자 한명희 교수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노래가 있다고 하신다.

언제부터 누가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리랑 노래만 나오면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라고 불릴 만큼 지구촌 어느 곳에 동지를 틀고 살아가든지 간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十里)도 못가서 발병난다...” 많은 사람들이 연가(戀歌)로 알고 있는 아리랑은 단순한 연가가 아니라, 심오한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노래이다.

한명희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에는 묘한 일면이 있다고 더 붙인다. 그토록 널리 알려진 민요임에도 막상 아리랑이 어떤 노래냐고 물으면 설명할 길이 없다. 시도할수록 실체는 멀어지고 만다. 분명 민요이긴 한데 단순한 민요가 아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 자욱한 안개처럼 드리워 있다. 오리무중(五里霧中) 같다. 어쩌면 오리무중의 정체를 밝혀보려는 의도 자체가 무모한 짓일지도 모른다. ‘도(道)를 도(道)라고 말하면 도(道)가 아니다’라고 어느 선현이 말하지 않았던가.

아리랑 역시 이와 같다. 확실히 아리랑은 민요인데 민요 이상의 감성적 문화적 색채들을 담고 있다. 그 복잡한 의미망과 아우라 들을 설명할 길이 없다. 가락도 악상도 천차만별이며, 가사도 시상(詩想)도 변화무쌍의 요지경(池)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에서 아리랑을 배경음악으로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고 있는 귀화 한국인 민유라와 알렉산더 캡린 선수.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 댄싱 배경곡으로 전세계 울려 퍼지며 외국인들도 가슴 뭉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1위에 선정 일본서 들은 아리랑 이야기 새삼 떠올라

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한국 고유의 전통 가곡 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파리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 위원회의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1위에 선정됐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작곡가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곡 선정 대회에서 8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선정인 중에는 단 한명의 한국인도 없었다. ‘아리랑’은 음악을 사랑하는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깨우쳐줬다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이들 모두 처음 듣는 곡이었으며, 한국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씨가 전자바이올린으로 연주할 때 몇 번 씩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아리랑은 우리의 대표적인 구전민요로, 우리 민족의 정한(淸恨)이 깃들여 있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널리 애창되어왔다. 일제 강점기에는 겨레의 울분과 억눌린 민족의 한을 표출하는 저항의 노래였다. 아리랑을 멀리 외국에서 들으면 더욱 감동으로 다가오기에 우리 교민들은 잊지 못한다.

오래 전 일본 규슈지방을 여행하면서 들은 아리랑 이야기는 가슴을 적신다.

태평양 전쟁 후반기에 미군이 반격하여 필리핀을 점령하자, 일본은 자살특공대인 ‘신풍특공대’ 계획을 세웠다. 일명 ‘가미가제’ 부대다. 이른바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미군의 전함에 돌격하는 자살공격이다. 자원병 모집 땀 경쟁률이 엄청났다. 천황에 대한 충성 심의 발로였던 것이다. 이들은 자살공격에 앞서

천황이 하사한 술을 한잔 마시고는 “어머니, 저는 꽃잎이 산화하듯 죽을 것이며, 그 죽음이 조국을 위해 아름답기를 바랄뿐입니다.”라는 유서를 쓰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한다.

미군들은 자살특공대를 보고는 처음에는 엔진고장을 일으키거나 일본 비행기의 실수라 생각했다. 그러나 특공대의 정체를 알자 충격에 휩싸였다. 특공대의 공격으로 언제 격되 당할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기도 했다. 오키나와 상륙전 때는 수백 대의 카미카제 특공대가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이들의 희생에 비해 성과는 미군에게 공포심을 준걸 제외하면 미미한 것이었다. 목표는 미 군함의 지휘 탑이나 전함이었지만, 접근하기도 전에 대공 포탄에 격추당하거나 접근한다고 해도 갑판에 추락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특공대에는 사상이 투철한 일본인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렵사리 조선인 탁소위가 선발되었다. 탁소위는 그곳 기지의 식당에서 기거하며 훈련을 받았다. 식당 여주인에게는 여고생인 딸이 하나 있었다. 집에 늦게 돌아오는 탁소위의 저녁 차림은 그 여고생의 뒤편이었다. 그들 남녀는 함께 지내다 보니 사랑이 짙어져 갔다. 탁소위는 그 소녀에게 조선의 풍습이나, 그가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배운 아리랑도 가르쳐 주었다.

탁소위가 출격하기 전날 밤, 소녀의 어머니는 탁소위와 딸과 함께 저녁을 들면서 그에게 내일 출격을 하더라도 반

드시 살아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탁소위는 살아 돌아오지 못 하면 나비가 되어서라도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였다.

저녁 6시면 돌아오던 탁소위가 그 날 7시가 지나도, 8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9시 훨씬 지나서 나비가 한 마리가 방안으로 들어왔다. 소녀는 나비를 받기며 기다리던 탁소위의 영혼이 돌아왔다고 통곡하며 한없이 울었다.

조선이 해방된 후, 두 모녀는 탁소위의 고향을 찾았으나 그의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었다. 안동 어느 양반가 출신인데 탁소위가 일본 특공대에 지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어머니는 그곳을 떠나 친정이 있는 경남 어느 시골에 가 있었다. 두 모녀는 사망으로 수소 문하고, 묻고 물어서 탁소위 어머니를 뵈게 되었다. 두 모녀를 반갑게 맞이한 탁소위의 어머니는 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유품이라도 보여 달라고 했지만, 탁소위가 출격전날 자기 물건을 모두 불에 태워버렸으니 그를 증명할만한 것이 없었다.

그때 소녀가 탁소위로부터 배운 아리랑을 몸짓까지 하며 구성지게 부르자, 어머니는 자기가 아들에게 가르쳐준 그 제스처와 가락이라며 깜짝 놀란다. 어머니는 소녀의 손을 꼭 잡고는 통곡하며 한없이 울었다. 아들을 알게 하는 유품이 한 점도 없었지만, ‘아리랑’ 가락만이 탁소위가 아들임을 증명해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아리랑에는 우리의 삶이 녹아있고 우리 민족의 혼이 들어있다. 아리랑 가사를 곰곰이 새겨보면, 예사로운 내용이 아니구나 싶기도 하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곧 인생살이 자체가 아니던가. 시간을 따라서 계속 가다보면 걷기 편한 평지도 있고, 힘든 고개를 만나기도 하는데 그게 인생길이다. 평지는 쉽지만 고개는 힘들다. 힘들어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인생행로다. 결국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두 젊은 남녀의 아이스댄싱은 환상적인데다가 배경곡으로 아리랑이 울려 퍼지자 모든 관객들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심지어 외국인들까지도 그랬다. 댄싱의 두 남녀도 아리랑에 매료되어 눈물까지 흘렸다. 아마도 TV를 지켜보던 우리국민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과연 우리 가락 아리랑이다. 필자도 가슴이 찢해지는 걸 느끼며 울컥하기도 했는데, 순간 규슈지방에서 들었던 탁소위의 아리랑 이야기가 떠오른 것이다. 정말 그 때의 감정과 감동을 잊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삶이 녹아있는 ‘가슴 울린 아리랑’이었다.

한류의 원동력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장소현

(미대 65, 미술평론가, 시인)

한류, K-컬처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열기가 오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랑스롭다.

K-팝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정상에 당당히 올랐고, 오랜 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할리우드의 아카데미상, 에미상 등 권위 있는 트로피를 한국 예술가들이 거머쥐고 있다. 얼마 전 까지도 감히 상상조차 어려웠던 꿈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어깨가 절로 으쓱해진다.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K-아트, 미술한류의 열기도 뜨겁다.

2022년 LA카운티 뮤지엄에서 열린 한국근대미술 특별전 <사이의 공간>과 박대성 수묵화 미국 순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보스턴 지역에서 개최된 <한국미술 주간>, 뒤이어 2023년에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오직 젊음: 1960-70년대 한국 실험미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한국실 설치 25주년 기념 <계보: 메트의 한국미술> 특별전,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시간의 형태: 1989년 이후 한국미술> 특별전, 샌디에이고 미술관의 한국 채색화 특별전 <생의 찬미> 등 한국미술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전에 없던 일이다. 어리둥절할 지경으로 반갑다.

이런 열기는 2024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LA카운티 뮤지엄은 체스터 장 기증품 특별전을 열고 있고,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한국 실험미술전은 UCLA 해머 뮤지엄으로 옮겨 전시되고 있다.

한편 덴버미술관에서는 <완벽하게 불완전한: 한국 분청사기전>이 열리고 있다.

이들 특별 전시회는 한국의 국립 미술관, 박물관과 미국의 유수 미술관이 힘을 모아 기획한 대형전이다. 내용면에서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 실험미술까지 시기와 다양한 장르의 미술을 망라하고 있다.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은 윤범모 관장이 취임하여 한국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주력하며, 2022년을 '미술한류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위에 열거한 대형 기획전들도 그런 노력



지난해 9월 스톤브룩대 찰스왕센터에서 열린 한국 현대 수묵화의 거장 박대성 화백 전시회.



지난해 10월 샌디에이고 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채색화 특별전 '생의 찬미' 전시회.

미국 유명 뮤지엄 곳곳서 열리는 한국 미술전 조선시대, 근현대, 실험미술까지 시기·장르 다양 사회적 관심, 국력 뒷받침 ... 미술 한류 낙관적

의 결실이다.

그러니까 미술한류의 열풍이 우연히 일어난 일시적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끈기있게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지에 사는 한인동포들과 한인 작가들의 기여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미술한류 열풍의 정체와 저력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미술의 근본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같은 정체성의 문제 등등...

한류열풍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내 생각에는 '자신감의 복원'을 으뜸으로 꼽고 싶다.

일그러진 우리의 근현대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도무지 자신감을 가지

기 어려운 세월을 살았다. 식민지, 해방정국의 이념 대립, 동족을 죽여야 하는 전쟁, 분단, 밀려드는 서구 문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현대화는 곧 서구화를 의미했다. 살기 위해 서양을 무조건 추종해야 했다. 사회의 모든 구조는 물론 교육마저도 서양 중심이었다.

우리 것은 구석에 처박아놓고 거들떠보지 않고 남의 것 베끼기에 정신이 없었으니... 정신적 자존심을 세우고,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웠다. 그래서 나온 한탄이 "엽전은 어쩔 수 없어!"였다.

그러다가 88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축구 응원 열기, 그리고 촛불을 계기로 억눌렸던 우리의 자존감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고, 우리 자신도 놀랐다.

김지하 시인은 붉은 악마와 광장의 함성을 후천개벽이라 평가했고, 이어령

교수는 21세기 최초의 대제전이요 세상을 바꿀 새로운 문화 코드의 발화점이라고 감탄하며 반겼다.

"월드컵-축제 문화 코드는 감동과 나눔, 열정과 신바람, 결집과 참여로 한국인이 하나가 되는 신화였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 땅으로 쏠렸다" -이어령

이렇게 되살아난 자신감이 나라 발전과 한류의 저력이 된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자신감!

사실 미술한류는 '한국미술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움직임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1953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 조각전 <무명 정치수인을 위한 모뉴먼트>에 조각가 김종영이 입상한 이래, 각종 국제 비엔날레 참가, 백남준 등 선구적 작가들의 활동, 최근에 관심을 모은 단색화 등 이런 바탕 위에 이제 꽃 피우고 열매 맺기 시작한 것이다.

한류 열풍이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다. 한류의 모든 분야에 고마운 선구자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있다. 그런 선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의 한류를 한층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미술한류의 전망은 매우 밝다. 한때의 바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여러 가지 조건이 희망적이다. 우선은 막강해진 국력의 뒷받침이 든든하고, 사회적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근본적으로 한국미술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앞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하여 각광받을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젊은 작가들도 많다. 물론 우리 미주 한인작가 중에도 기대주가 적지 않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거기에 더해, 세계 중요 미술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출신 큐레이터들의 존재도 든든한 믿음을 준다.

미술한류의 열기는 우리 미주 한인 작가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당당하게 세우는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할 것이다. 물론 그만큼 책임도 커지다, 좋은 작품을 해야 한다는...

끝으로 사족 한 마디.

야심차게 '미술한류의 원년'을 선포하고 한국미술의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온 국립현대미술관의 윤범모 관장이 지난 2023년 4월 임기 2년을 남기고 중도 사임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사임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아무췌로, 관장이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술한류를 위한 노력은 일관되게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먼 앞날을 바라보는 지속성과 끈기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럴 것으로 믿는다.



김자성
(의대 79)

신념과 망상의 덧

정신과 임상에서 피해 망상 과대 망상 환자들이 종종 있다. 둘은 동전의 앞 뒷 면처럼 붙어 다닌다.

한 미국인 중년 남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온 세상을 파괴할 힘이 있다고 믿는데 뭔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확신한다. 여러 여자 형제 사이에 외동 아들로 자라난 그는 자기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학창 시절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일찍부터 마리화나 상용자가 되었고 지금도 그렇다.

또 CIA가 자기를 타겟으로 괴롭힌다고 믿는 환자도 있다. 왜 자기 같은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지 논리적으로 넘지시 설득하려 해도 그 믿음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이런 환자들에겐 그들의 저변의 감정, 느낌 등에 초점을 맞춰 그 어려운 점을 이해, 공감하려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치료적으로 도움이 된다. 약을 타 먹기는 하지만 단지 잠을 위해 먹는다고 믿을 뿐이라 용량을 올리려는

시도는 여지없는 저항에 부딪친다. 그들에겐 이게 생생한 현실이다.

한번은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지만 마음에 죄책감, 수치심을 많이 갖고 있는 환자는 윗층에 사는 사람이 자기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자기가 보는 포르노 프로그램에 반응해 깔깔거리며 웃고 조롱한다고 믿는다. 그에게 이런 저런 정황으로 그것이 자기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 버렸다. 다행히 그 환자는 다음 달 다시 찾아왔고 그 뒤부터는 망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그 사람의 대인관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칭찬과 독려 등으로 접근하니 개인적 고립감이 줄어들며 자신감이 좋아지면서 그 망상은 점차 퇴색하였다.

다른 한 편, 일반인들 중에도 자기의 견해,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다. 종교나 정치에서 두드러지는데, 같은 종교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믿거나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여지없이 부정하고 자기만의 신앙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음모론을 포함, 말도 안되는 것을 신봉하며 자기의 견해에 강하게 매달린다.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종교와 정치 얘기는 피하라는 말이 나옴직 하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까?

신념이나 망상 뒤에는 감정, 욕구적인 배경이 있는데, 감정의 레이다로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감정적 욕구적 배경이 눈에 띈다. 수치심, 죄책감,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 자부심에 대한 좌절된 욕구 등등, 여러 감정적, 욕구적 이유가 함축돼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또 다른 이해의 틀은 발달 단계에 따라 가치나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켄 윌버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발달은 단계단계를 거쳐 일어나는데 2nd tier(이층)에 해당하는 통합적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의 1st tier(일층)에 해당하는 매 단계에서는 자기가 보는 관점이 궁극적으로 옳고 다른 관점은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전 인류를 발달 단계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누면 무계 중심이 주로 신화적 전통적 단계, 합리적 근대 단계, 다원주의적 탈근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세 주요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부류 사이에 일어나는 가치관, 관점의 차이가 문화전쟁으로 나타난다. 이 세 단계들은 전부 1st tier 즉 일층에 해당한다고 하며 2nd tier 이층에 해당하는 통합적 단계는, 지나온 각 단계의 상대적

진리를 존중,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단계라 한다. 현재 전체 인구 중에서 통합적 사고 단계에 도달한 비율이 5%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어차피 전체 대중의 발달단계는 넓은 범위에 퍼져 있는지라 이런 전반적 사회의 계층을 통합할 뒀은 성장관에 해당하는 더 상위의 지도자적인 그룹의 역할이라고 보인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첨예하게 대립된 사회, 정치 현상을 보이고, 전세계에 아직도 종교를 중심으로 한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실로 볼 때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통합적 발달단계에 이른 계층의 확대가 절실한 현실이다.

그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발달에 대한 전반적 지도 공부, 또 통합명상을 소개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자신의 렌즈를 통해 보는 세계를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 자기가 보는 렌즈의 상태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 그 관점에서부터 점차 놓아나면서 더 상위의 관점이 나타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발달의 첨단에 이른 계층이 전체의 10%가 되면 그 관점을 중심으로 큰 사회적 변혁이 있어 왔다고 하면서 지금 이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한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아일(Aisle)’의 정치학

비행기 좌석은 크게 아일(aisle·복도)과 윈도(window·창문)로 구분된다. 뉴욕-LA 구간처럼 한 번 타고 나면 도착하는 거리라면 대체로 윈도를 선호한다. 그러나 LA-인천의 장거리 노선은 대부분 아일을 원한다. 화장실 출입도 자유스럽고 특히 옆 좌석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일은 비행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연방 상원 의사당은 한가운데 아일, 곧 복도가 나 있다. 통행과 접근의 편리성을 고려해서다. 그런데 오른쪽은 민주당, 왼쪽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앉아 흥미를 끈다. 사회를 보는 의장 쪽에서 보면 그렇다. 민주당은 우파(보수), 공화당은 좌파(진보)가 아닌데 반대쪽 방향에 앉아 있다.

아무리 구글 검색을 해봐도 언제 이런 관습이 생겼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 그저 두 당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는 설명만 뜬다. 이젠 하원도 상원의 좌석 배치 전통을 따른다.

복도에 책상을 놓고 의정활동을 한 의

원도 있다. 공화당을 탈당한 그는 무소속으로 남았다. 중립을 지킨다고 해서 딱 하니 ‘아일’에 자리를 잡은 것. 의원들이 걸리적거린다며 불평을 해대자 슬그머니 책상을 오른쪽으로 옮겼다.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꾼 것이다. 1950년대 얘기다.

두 당 지도부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또 다른 흥밋거리다. 처음엔 맨 뒷줄 복도 쪽에 있었다. 자당 소속 의원들이 입장할 때마다 당론이라며 지령을 내리는 바람에 불만이 컸다.

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웬 참견이라는 항의에 결국 지도부는 맨 앞쪽으로 ‘유배’를 당했다. 의원들이 모두 뒤에 앉아 있으니 이래라저래라 지시 내리기가 쉽지 않을 터.

이처럼 미국의 정치에서 ‘아일’은 시사해주는 바가 아주 크다. 가장 널리 회자되는 사례는 섹스비 챔블리스와 에드워드(테드) 케네디 상원의원. 둘은 2003년 처음 만났다. 챔블리스는 초선이었으나 그해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 운 좋게 농무 위원장 자리를 꿰찼다.

케네디는 한때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이 나라 최고 명문 가문 출신. 같은 위원회에 배정된 케네디가 ‘아일’을 건너 챔블리스를 찾았다. “섹스비, 당선을 진정 축하하네. 내일 자네 방을 찾아가겠네. 위원장에 보고할 일이 적지 않아요.”

챔블리스는 당황해 어찌할 줄 몰랐다.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 방으로 가 뵈겠습니다.” 케네디가 손사래를 쳤다. “아닐세, 내가 예의를 지켜야지. 나랏일을 하는데 몇 선인지, 그리고 어느 당 소속인지가 뭐 그리 중요한가.”

지난 2009년 케네디가 암으로 숨을 거두자 챔블리스는 어느 누구보다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케네디아말로 ‘크로스 디 아일(cross the aisle)’ 이른바 ‘복도를 건너다’는 용어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인물이라며 그와의 지난날을 추억했다.

복도를 건넜다면 상대 당 쪽에 동조한다는 의미여서 변절 또는 배신행위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이다. 케네디는 그러나 무릇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상대 당의 의견

에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면 몇 번이라도 복도를 가로질러야 한다는 가르침을 줬다.

챔블리스는 케네디의 뜻을 따랐다. 오바마 시절 사상 초유의 연방정부 디폴트(국가채무 불이행) 사태가 벌어지자 민주당 의원들과 뜻을 함께해 나라를 위기에서 살려냈다. 이후 ‘아일’은 초당적인 합의 또는 협치의 상징으로 쓰여지게 됐다.

몇해전 연방의회에서 압도적(찬성 419, 반대 1)으로 통과한 대북 제재법만 봐도 그렇다. 공화당이 발의한 법안인데도 민주당 전원이 지지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조차 놀랐다는 후문이다. 더 놀란 건 반대한 의원의 출신 당. 공화당 소속으로 드러났지 않은가.

오는 4월 열리는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와 과담이 난무하는 등 여야간에 진흙탕 싸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어느 당이 집권하든 앞날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아일’을 넘나드는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故광선 (공대 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 (약대 60)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뉴욕 - 조상근 (법대 69)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남가주 - 박종수 (수의 58)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남가주 - 이흥표 (의대 58)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남가주 - 홍수웅 (의대 59)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뉴욕 - 김창수 (약대 64)
뉴욕 - 오인석 (법대 58)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미시간 - 박용화 (의대 58)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커네티컷 - 김창수 (의대 54)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 - 손재옥 (가정 77)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故김원경 (약대 59)
남가주 - 권봉성 (문리대 64)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남가주 - 이종모 (간호대 69)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워싱턴DC - 남옥현 (경영대 84)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필라델피아 - 신의석 (공대 53)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승 (의대 60)
강신용 (사대 73)
곽웅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김광은 (음대 56)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 65)
김성호 (법대 64)
김수영 (사대 57)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류재풍 (법대 60)
박명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서동영 (사대 60)
신건호 (법대 53)
신영찬 (의대 62)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오홍조 (치대 56)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재진 (문리대 55)
이청광 (상대 61)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균희 (의대 64)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대 72)
정철룡 (의대 55)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하기환 (공대 66)
한호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종화 (약대 74)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강에드워드 (사대 60)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용 (치대 55)
김종률 (사대 51)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진태 (약대 67)
신응남 (농대 70)
윤종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덕 (법대 60)
이재량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행 (공대 47)
이태호 (상대 58)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최한용 (농대 58)
추재옥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DC
강연식 (사대 58)
공순옥 (간호대 66)
권기현 (사대 53)
민홍기 (문리대 61)
방은호 (약대 43)
박평일 (농대 69)
서취열 (의대 57)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 65)
이윤주 (상대 63)
최재귀 (미대 63)
최지원 (의대 61)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북가주

강재호 (상대 57)
손석보 (공대 68)
윤정옥 (약대 50)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시카고

강영국 (수의대 67)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조봉완 (법대 53)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박희진 (농 78)
이은상 (상대 52)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대 81)
조형준 (문리대 62)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 66)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현민 (공대 84)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석호태 (공대 85)
이종석 (의대 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종민 (공대 64)
손재옥 (가정대 77)
신성식 (공대 56)
주기목 (수의대 68)

하트랜드

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하와이

故최경윤 (사대 51)

알래스카

윤제중 (농대 55)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4.6.30;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강경수 (법 58)
강동순 (법 59)
강윤희 (간 46)
강창만 (의 58)
강춘자 (간 69)
강호석 (상 81)
고남규 (의 68)
고석규 (치 65)
권기상 (대 72)
권봉성 (문 64)
김경 (문 63)
김경수 (사 58)
김건진 (문 62)
김동석 (음 64)
김영배 (미 61)
김경수 (치 54)
김경욱 (미 61)
김경자 (미 60)
김광은 (음 56)
김난영 (공 53)
김원택 (공 65)
김동산 (법 59)
김명숙 (농 58)
김문업 (농 83)
김범수 (문 61)
김병완 (공 58)
김상찬 (문 65)
김석홍 (법 59)
김성호 (법 64)
김성환 (의 65)
김수향 (간 68)
김순갈 (법 54)
김순자 (치 57)
김영덕 (법 58)
김옥경 (생 60)
김용주 (간 69)
김용채 (문 61)
김일영 (의 65)
김재영 (농 62)
김정애 (간 69)
김정호 (농 59)
김종표 (법 58)
김준일 (공 62)
김창진 (공 77)
김태환 (문 78)
김태운 (법 53)
김택수 (의 57)
김학철 (의 55)
김혜숙 (미 68)
김희창 (공 64)
나두섭 (의 66)
나승욱 (문 59)
노명호 (공 61)
문병길 (문 61)
마동일 (의 57)
민영기 (공 65)
민일기 (약 69)
박명근 (상 63)
박민식 (수 65)
박부강 (사 64)
박상원 (대 20)
박원준 (공 53)
박용 (문 89)
박우선 (공 57)
박은숙 (미 62)
박인수 (농 64)
박인창 (농 65)
박일우 (의 70)
박임하 (치 56)
박자경 (생 60)
박종수 (수 58)
박찬호 (농 63)
박한영 (치)
박해욱 (간 69)
박호현 (의 52)
박흥근 (공 64)
박희자 (음 68)
배동완 (공 65)
백옥자 (음 71)
백혜란 (미 70)
벤자민 홍 (문 53)
서동영 (사 60)
서명희 (농 67)
서세진 (음 62)
서치원 (공 69)
성낙호 (치 63)

손갑수 (약 59)
손기용 (의 55)
손학식 (공 61)
송명국 (문 81)
송요준 (의 64)
신건호 (법 63)
신동국 (수 76)
신영찬 (의 62)
신정연 (미 61)
양승문 (공 65)
양승조 (음 70)
양은석 (음 70)
양태준 (상 56)
신정현 (의 63)
오찬수 (약 57)
오형원 (의 53)
원종민 (약 57)
위종민 (공 64)
유덕영 (공 57)
유이충 (농 74)
유석환 (치 55)
육태식 (의 61)
윤경민 (법 55)
윤영돈 (법 59)
윤희성 (치 65)
이강훈 (치 65)
이건일 (의 62)
이경희 (인 83)
이기준 (법 54)
이방기 (농 59)
이범식 (공 61)
이상무 (의 56)
이서희 (법 70)
이성자 (간 76)
이소희 (의 61)
이소희 (생 60)
이용주 (간 69)
이용찬 (공 64)
이원택 (의 65)
이원익 (문 73)
이익삼 (사 58)
이장길 (치 63)
이재권 (법 56)
이정근 (사 60)
이정남 (공 63)
이정화 (공 52)
이종묘 (간 69)
이준호 (상 65)
(고)이중희 (공 53)
이진영 (의 65)
이창무 (공 54)
이창신 (법 57)
이채진 (문 55)
이호 (음 92)
임동규 (미 57)
임동호 (약 55)
임문빈 (상 58)
임석중 (공 50)
장기열 (치 55)
장기창 (공 56)
장대욱 (음 57)
장동석 (문 66)
장문섭 (공 69)
장소현 (미 65)
장원경 (미 73)
장윤희 (사 54)
장인숙 (간 70)
장정용 (미 64)
장춘호 (공 56)
전경배 (의 69)
전낙관 (사 60)
전범수 (농 71)
전상욱 (사 52)
전원일 (의 77)
전균희 (의 64)
정동주 (생 72)
정예현 (상 63)
정연웅 (상 63)
정인환 (법 54)
정재형 (약)
정철룡 (의 61)
정현진 (간 68)
정형민 (문 71)
정혜령 (간 72)
정황 (공 64)
제영해 (생 71)
조경애 (음 64)
조재국 (농 67)

주정래 (상 65)
조태목 (사 60)
주훈 (음 69)
차중환 (사 54)
최복철 (공 70)
최영구 (상 61)
최영순 (간 69)
최영지 (미 62)
임동규 (미 57)
한귀희 (미 68)
한동수 (의 60)
한성구 (상 53)
한익일 (공 62)
한정현 (치 55)
한홍택 (공 60)
홍성선 (약 72)
홍선일 (공 71)
홍수웅 (의 59)
황건흠 (공 55)
황현상 (의 55)

뉴욕

AiJa Lee
곽선섭 (공 61)
강상진 (의 53)
고순정 (간 69)
고애자 (음 57)
권문웅 (미 61)
권영국 (상 60)
권정덕 (의 58)
금영천 (약 72)
김경일 (치 61)
김문경 (약 61)
김승호 (공 71)
김우영 (상 60)
김영현 (간 70)
김영웅 (치 55)
김영철 (의 55)
김영휘 (법 80)
김용연 (문 63)
김정희 (간 69)
김종원 (생 58)
김진자 (간 60)
김창수 (약 64)
김창화 (미 65)
김태일 (공 68)
김학자 (간 59)
김해암 (의 52)
김현중 (공 63)
문석연 (의 52)
민인기 (의 67)
리준우 (음 65)
박건이 (공 60)
박경희 (음 57)
박은규 (약 72)
방준재 (의 70)
변경웅 (공 65)
변호련 (간 63)
배상규 (약 60)
서충선 (사 57)
석창호 (의 66)
선종철 (의 59)
성기로 (약 57)
손경택 (농 57)
송기인 (의 60)
송웅길 (대학원 69)
신두식 (의 58)
신웅남 (농 70)
안태홍 (상 65)
양성택 (상 66)
오용환 (약 68)
에드워드 강 (문 60)
우규환 (사 60)
우상영 (상 55)
유인숙 (간 63)
유재섭 (공 65)
육순재 (의 63)
윤병남 (사 62)
윤영섭 (의 57)
윤현남 (공 64)
이강욱 (공 70)
이명중 (공 72)
이문봉 (미 76)
이충욱 (농 69)
이충호 (의 63)
이상근 (상 84)
이영일 (의 60)

네바다

김삼순 (상 67)
김영중 (치 66)
김용재 (의 60)
정상진 (상 59)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문성인 (공 88)
민홍기
박현아 (공 88)
성유진
윤정식 (농 86)
이창재(문 56)
주한수 (수 62)
황호숙 (사 65)

미시간

고광국 (공 54)
고선희 (문 63)
김국화 (공 56)
김우신 (의 60)
김재석 (의 61)
남성희 (의 56)
박용화 (의 58)
오동환 (의 65)
오혁주 (사 88)
이성길 (의 65)
장병진 (공 61)
조병권 (공 64)
주명순 (간 64)
하계현 (공 64)

북가주

강재호 (상 57)

이유성 (사 57)
이준행 (공 48)
이태안 (의 61)
이홍우 (공 50)
전병삼 (약 54)
정동성 (상 58)
정인용 (의 71)
정해민 (법 55)
정화웅 (사 61)
조남천 (사 59)
조대영 (공 61)
조득환 (의 61)
조종수 (공 64)
조태환 (상 56)
진봉일 (공 50)
차국만 (상 60)
최영태 (문 67)
최승웅 (의 61)
최정웅 (사 63)
최한용 (농 58)
최형무 (법 69)
한병용 (문 71)
한태진 (의 58)
함종균 (간 66)
허경력 (의 71)
허선행 (의 58)
허정열 (사 63)
홍정표 (음 67)

뉴잉글랜드

곽노균 (상 51)
김경일 (공 58)
김문소 (수 61)
김선희 (약 59)
박영철 (농 64)
박종건 (의 56)
송미자 (농 62)
윤상래 (수 62)
윤영자 (미 60)
이규진 (약 60)
이금하 (문 69)
이은주 (음 73)
이의인 (공 68)
임영호 (공 72)
장용복 (공 58)
정선주 (간 68)
정정욱 (의 60)
(고)추창준 (의 50)
최선의 (문 69)
한서동 (의 61)

네바다

김삼순 (상 67)
김영중 (치 66)
김용재 (의 60)
정상진 (상 59)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문성인 (공 88)
민홍기
박현아 (공 88)
성유진
윤정식 (농 86)
이창재(문 56)
주한수 (수 62)
황호숙 (사 65)

미시간

고광국 (공 54)
고선희 (문 63)
김국화 (공 56)
김우신 (의 60)
김재석 (의 61)
남성희 (의 56)
박용화 (의 58)
오동환 (의 65)
오혁주 (사 88)
이성길 (의 65)
장병진 (공 61)
조병권 (공 64)
주명순 (간 64)
하계현 (공 64)

북가주

강재호 (상 57)

김교연 (문 72)
김성철 (공 82)
김정복 (사 55)
김정희 (법 56)
김현왕 (공 64)
남광순 (음 64)
박서규 (법 56)
박성수 (공 59)
박영훈 (공 72)
송영훈 (상 57)
신규영 (공 64)
안호삼 (문 58)
위장호 (의 67)
이관모 (공 55)
이성원 (공 65)
이성형 (공 57)
이창한 (공 56)
이흥기 (공 62)
임승쾌 (문 66)
임정란 (음 76)
전병련 (공 54)
정춘임 (간 67)
조태목 (사 60)
최경선 (농 65)
한상봉 (수 67)
홍병익 (공 68)
황동하 (의 65)

샌디에고

고경하 (공)
남창우 (사 56)
이문상 (공 62)
오계환 (공 64)
윤진수 (의 57)
이문상 (공 62)
이명기 (공 64)
이영신(간 77)
임춘수 (의 57)

사카고

강영국 (수 67)
구경희 (의 59)
김길준 (의 59)
김규호 (의 58)
김병윤 (문 65)
김성일 (공 68)
김승주 (간 69)
김용주 (공 69)
김용환 (공 71)
김윤하 (공 66)
김정수 (문 69)
김현주 (문 61)
노영일 (의 64)
민영기 (공 65)
박동수 (정 58)
박정일 (의 61)
박창욱 (공 56)
백윤기 (문 56)
서상현 (의 65)
소진문 (치 58)
송재현 (의 45)
신석균 (문 54)
안영학 (문 57)
유기정 (간 72)
육길원 (사 59)
윤경순 (사 61)
윤덕상 (치 62)
이경미 (미 69)
이건철 (공 69)
이동균 (공 75)
이소희 (간 68)
이승자 (사 60)
이시영 (상 45)
이용락 (공 48)
(고)이윤모 (농 57)
이종일 (의 65)
장윤일 (공 60)

전연학 (공 69)
전현일 (농 62)
최태한 (의 59)
최혜숙 (의 53)
최희수 (문 67)
한재은 (의 59)
홍건 (의 64)
홍청일 (약 57)
황소나
황치룡 (문 65)

아리조나
진명규 (공 70)

오레곤

김영자 (간 56)
박희진 (농 78)
최용성 (의 55)
한국남 (공 57)
한영준 (사 60)

오하이오

명인재 (자 75)
박훈 (공 74)
(고)이영웅 (의 57)

워싱턴 DC

강길중 (약 69)
고의걸 (의 55)
곽명수 (문 65)
권철수 (의 68)
김기봉 (공 63)
김기한 (공 67)
김내도 (공 62)
김부근 (의 58)
김영란 (사 58)
김윤희 (공 64)
김용환 (치 88)
김희주 (의 62)
나연수 (사 57)
남춘일 (사 69)
박인영 (의 69)
박일영 (문 59)
박찬모 (공 54)
박홍우 (문 61)
배성호 (의 65)
백순 (법 58)
백용현 (공 64)
석균범 (문 61)
신경은 (문 65)
오인환 (문 63)
양용관 (수 62)
우제형 (상 54)
유달 (의 67)
유영신 (인 74)
유영준 (의 74)
이건형 (수 54)
이내원 (사 58)
이서구 (문 61)
이선구 (문 65)
이성배 (수 57)
이연주 (치 88)
이영덕 (사 61)
이윤주 (상 63)
이재승 (의 55)
이종국 (의 52)
이준영 (치 74)
이진상 (공 57)
이철수 (공 61)
임광록 (간 72)
정영자 (사 56)
정원자 (농 62)
정평희 (공 71)
조병선 (의 65)
천권희 (간)
최대영 (의 73)
최재귀 (미 63)

한광수 (의 57)
홍영석 (공 58)

워싱턴주
김교선 (법 54)
김인배 (수 59)
김재훈 (공 72)
류성열 (공 72)
변동혜 (법 58)
안승적 (농 59)
윤석진 (문 64)
윤태근 (상 69)
이길승 (상 57)
이명자 (간 74)
이연주 (치 88)
이회백 (의 55)
정영자 (사 56)
최준한 (농 58)

유타

김인기 (문 57)

조지아

김기준 (공 61)
김영서 (상 54)
김종구 (수 73)
김현희 (간 59)
백낙영 (상 61)
서광모 (공 65)
오경호 (수 60)
윤영돈 (법 59)
은철수
이종석 (의 54)
임수암 (공 62)
임한웅 (공 60)
정선휘 (공 65)
최덕순 (간 58)
최종진 (의 63)
한성수 (의 54)

캐롤라이나

이종영 (음 58)
정신호 (자 78)

커네티컷

라찬국 (의 57)
최창승 (의 58)

테네시

김경덕 (공 75)
서갑식 (공 70)
임효순 (간 71)

텍사스

김장환 (공 81)
유황 (농 56)
윤영주 (문 60)
조진태 (문 57)
전중희 (공 56)
진기주 (상 60)
황명규 (공 61)

플로리다

김성준 (의 55)
김중권 (의 63)
박창익 (농 64)
안창현 (의 55)
오석일 (의 64)
원인순 (문 71)
이민우 (의 67)
이만택 (의 52)
정의철 (의 55)
하재철 (문 67)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 55)
강준철 (사 59)

김국간 (치 64)
김규화 (상 63)
김현영 (수 58)
손재욱 (가 77)
송성균 (공 50)
서의원 (공 66)
서종민 (공 64)
성정호 (약 59)
신선자 (사 60)
심영석 (공 76)
안세현 (의 62)
유영걸 (의 70)
윤정나 (음 57)
이규호 (공 56)
이성숙 (생 74)
이수경 (자 81)
이홍일 (상 70)
조화연 (음 64)
전무식 (수 61)
전방남 (상 73)
정덕준 (상 63)
정학량 (약 56)
정홍택 (상 61)
조정현 (수 58)
주기목 (수 68)
지홍민 (수 61)
최현태 (문 62)
한동휘 (문 57)
한수웅 (의 55)
한용오 (보 70)

하와이

김달욱 (사 55)
김용수 (농 75)
김을균 (공 63)
안은식 (문 55)
이재형 (수 61)
최경윤 (사 51)
하인환 (공 56)

하트랜드

김경숙 (가 70)
김재경 (공 64)
김태찬 (음 80)
김시근 (공 72)
배규영 (사 68)
오명순 (생 69)
이상강 (의 70)
이주현 (미 92)
이치현 (약 77)
임소연 (음 91)
정민재 (농 71)
조원지 (문 63)
호민선 (상 59)

휴스턴

김영일 (의 55)
박석규 (간 59)
박유미 (약 62)
박태우 (공 64)
이윤성 (수 81)
이은애 (음 81)
진기주 (상 60)
최관일 (공 54)
최성호 (문 58)
최용천 (의 53)

룩키마운틴스

송요준 (의 64)
전남인 (사 72)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4.6.30

일반후원금			네바다			하트랜드			시카고			뉴욕			나눔기금																																																																																																																																																																																																																																																																																																																																																																																																																																																																																																																																																																																																																																																																																																																																																																																																																																																																																																																																																																																																																																																																																																																																																																																																																													
남가주			김삼순 (상 67)			200			이상강 (의 70)			41,000			김현주 (문 61)			3,000			신응남 (농 70)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김동성 (음 64)			100			미시간			이성길 (의 65)			200			휴스턴			진기주 (상 60)			1,0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김영두 (음 59)			200			커네티컷			최창승 (의 58)			200			하와이			(고) 전영표 (문 55)			1,0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김양희 (음 77)			900																																																																																																																																																																																																																																																																																																																																																																																																																																																																																																																																																																																																																																																																																																																																																																																																																																																																																																																																																																																																																																																																																																																																																																																																											
박우신 (음 57)			300			샌디에고			임춘수 (의 57)			300			업소록 후원금			남가주			김수경 (생 84)			1,400			Brain Network			뉴욕			신응남 (농 70)			100			뉴잉글랜드			최진민 (공 71)			1,000																																																																																																																																																																																																																																																																																																																																																																																																																																																																																																																																																																																																																																																																																																																																																																																																																																																																																																																																																																																																																																																																																																																																																																																															
박하영 (음 71)			100			워싱턴DC			서동영 (사 60)			240			남가주			김원탁 (공 65)			240			신동국 (수 76)			300			시카고			워싱턴 DC			오인환 (문 63)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록키마운틴스			최문기 (공 63)			200																																																																																																																																																																																																																																																																																																																																																																																																																																																																																																																																																																																																																																																																																																																																																																																																																																																																																																																																																																																																																																																																																																																																																																																			
이영욱 (음 70)			500			강길중 (약 59)			김원탁 (공 65)			240			남가주			강호석 (상 81)			240			이병준 (상 55)			1,500			필라델피아			신익성 (공 53)			5,000			조지아			배혜영 (음 79)			800																																																																																																																																																																																																																																																																																																																																																																																																																																																																																																																																																																																																																																																																																																																																																																																																																																																																																																																																																																																																																																																																																																																																																																																															
이범식 (음 61)			200			권철수 (의 68)			김명철 (공 60)			200			이종모 (간 69)			240			이경희 (인 83)			300			Charity Fund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392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Kenneth G. Yum, CPA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cl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 순두부
이테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507, LA, CA 90006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 siloamchung@gmail.com
680 Wilshire Pl, #420, Los Angeles, CA 90005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치과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 UL-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익규 (상대 82)
T :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 haeahm@aol.com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윤세웅 비뇨기와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o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o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기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lp@snu.ac.kr
조지아
건축
Archipelago Construction LLC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Abbott Animal Hospital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n, GA 30345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이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213-388-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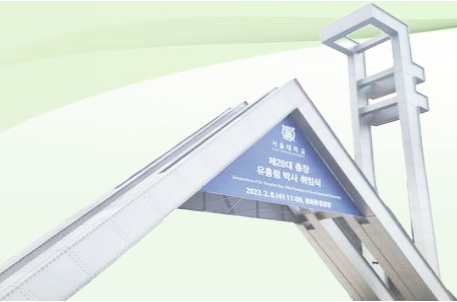
이상대 (농대 80)

*Specializing in routine
diabetic foot care,
sports medicine,
and more*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은 학생들이 한 끼 1,000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식사를 해결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금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채우고
배를 채우는
천원의 식사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 간단 참여신청서 *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america@snu.ac.kr 으로 보내주세요.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성명: 연락처(이메일):

학과(특별과정): 약정금액: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 +1-212-768-9144 F. +1-212-768-4494 E. kenneth@klcpagroup.com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 +1-213-435-1974 E.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 +82-2-871-8004 E. snuf@snu.ac.kr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박중수(수) 박창규(약) 이흥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중(농) 남윤호(문)

차기회장 황효숙(사)

명예회장 노명호(공)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임춘택(상)
IT국장: 심재호(공)/부국장 박문수(공, 워싱턴DC)
섭외국장: 임항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레(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이영주(농, 뉴욕)

장학위원회

위원장: 박평일(농)

위원: 황경순(공), 이치현(약, 캔사스)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포상위원회

위원장: 이상강(의)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태(미)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4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lkLim@gmail.com
차기 회장 채규환(법대 69) T: (818)489-7892
Kchae100@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 79)
T: (408)464-4502
beomsuupkim@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송오석(공대 91) T: (858) 349-6674
osoksong@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임현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ft@hot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 (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 86)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록시타운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김건호(공대 91)
kunjok@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대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oyon@hot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e)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조규승(문리대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차기 회장 정성일(공대 86) T: (301)395-7285
jeong05@gmail.com

뉴욕 NY/NJ (July~Jun)

연영재 (공대 74)
T: (201)233-7108
jayeonsnu@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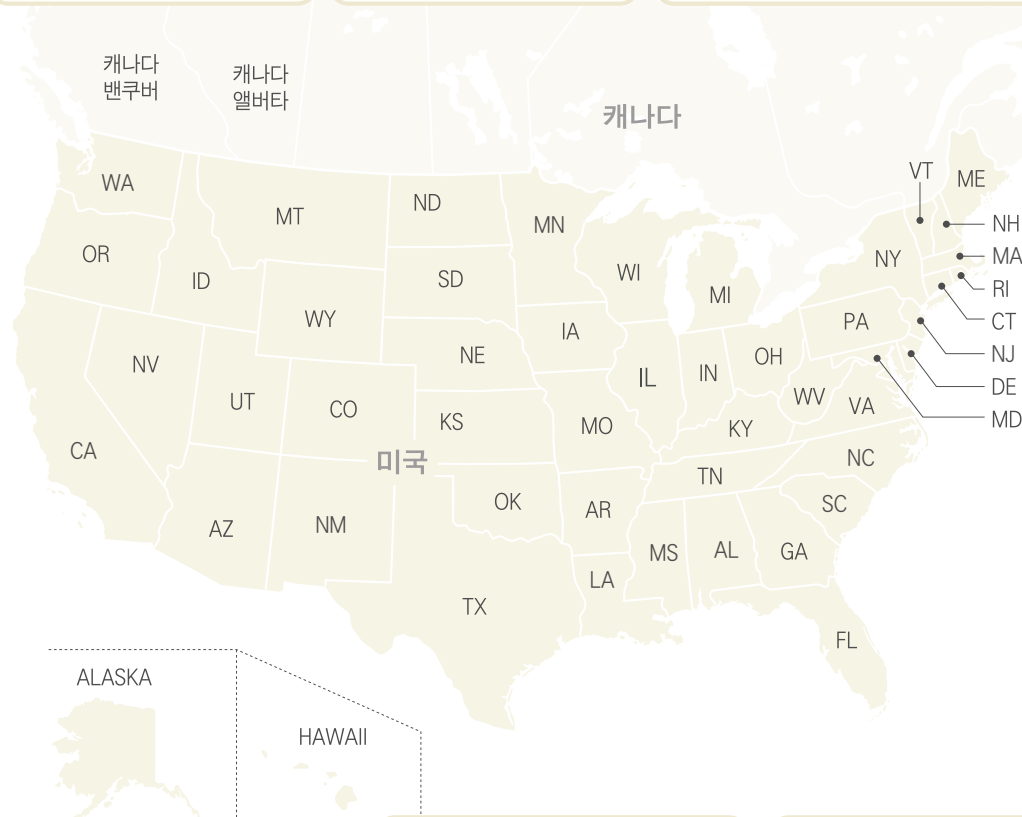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 65)
T: (561)962-5185
Yuhn@fau.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com@vols.utk.edu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DUO America
since 1999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듀오 뉴욕/LA 지사
구인광고 - 40대 영어와 한국말 필수

DUO America LA / NY 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NY **212-915-7115**



A.P.W. 자동차 부품

APOLLO PRONTO WAREHOUSE, INC.

서동영 (사대 60)

Tel.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신응남 변호사

- ✓ 파산전문
- ✓ 모기지 부채조정
- ✓ 각종 민사소송
- ✓ 사업체및부동산매매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 2FI UL-2, Flushing, NY 11358

신응남 변호사 (농대 70)

이병준 (상대 55)

MAKE THE WORLD BEAUTIFUL



SeAH

SeAH Steel America

2100 Main St. Suite 100
Irvine, CA 92614
(949) 655-8000

Byung Joon Lee

